



## 경북도 호우 피해지역 복구에 민관이 팔 걷고 나섰다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청렴도 늘 앞서간다는 마음으로 임해달라”

21일,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도청 직원 100여 명 춘양면 일대 수해 현장 투입, 복구에 구슬땀...

경상북도는 지난 주말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봉화 지역에서 민·관이 합심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탤다.

경북도는 주말인 22일 봉화군 춘양면 일대에 직원 100명을 투입해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봉화에는 지난 주말 325.3mm에 육박하는 물 폭탄이 쏟아진 바 있다.

이날 직원들은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서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파프리카 시설하우스 정리와 주택으로 밀려온 토사를 제거하는 등 피해 농가가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봉화군을 시작으로 수해복구와 일손이 필요한 현장을 선제적으로 찾아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경상북도 사회단체 역시 호우 피해지역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호우 피해가 발생한 15일부터 대한적십자사 예천지부를 포함한 9개 단체에서는 주택 토사 제거, 밥차 운영 등 다양한 봉

사활동을 펼쳤다.

17일부터 예천군새마을회 200명을 포함한 700여명의 경상북도새마을회 회원들이 피해지역 산사태현장 등을 찾아 복구 작업에 일손을 보태고 성과과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전 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 300여명의 회원들도 주택침수 등 피해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펼치고 생수, 즉석밥, 반찬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에서는 중장비 지원이 절실한 피해현장에 포클레인 2대를 지원하고 47명의 회원이 침수가옥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주말인 22일, 23일 동안 영주시바르게살기협의회, 문경시바르게살기협의회, 해병대전우회 경상북도연합회 등의 사회단체에서 영주, 문경, 봉화 피해현장 곳곳을 찾아 복구 작업에 힘을 더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청직원을 비롯

한 사회단체에서 한마음으로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나누는데 온 힘을 다해 주고 있어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인 만큼 복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9시 5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시장단, 3급 이상 간부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함께 수강했다.

서울시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고 적극 참여하고자 직원과 소통하는 ‘직원동행 프로젝트’, 기관장·고위직 갑질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정책 및 청렴도 향상 방안’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이번 청렴 교육을 계기로 자신도 모르게 흐트러졌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를 경계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으며,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는 마형 역할을 함에 있어서 청렴도 늘 앞서가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육에 임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 경기도, A가맹본부의 6억 4천만 원 부당이익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천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으로 속인 것으로 가맹회망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차액가맹금을 43%나 숨긴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거짓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은폐하거나 축소 기재한 것은

거짓 등록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정보공개서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했고,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 내용과 A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를 직접 조사 후 이와 같은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했다.

경기도는 또 조사과정에서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미기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관한 현황 미기재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현황 미기재 등 다수의 위반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의 거짓 등록과 중요사항 미기재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의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등 다수의 위반 혐의를 조사 중

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회망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아 겪을 피해의 규모가 크다”라며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신고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 관련 피해상담·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범상/기자



# 섬뽕할래? 경주, 섬뽕든지!

**경주 바다 추천 여행지**

- 오류고아리해변
- 양남주상절리
- 송대말뚝대
- 전촌술밭해변
- 물빛 사랑길&허서해안공원
- 전촌옹굴(사릉굴·단용굴)

**볼거리·즐길 거리 가득한 경주 청정바다에서 추억에 남는 여름휴가를!!**

김포읍 경주 이천대	김포읍 전촌항	문무대왕면 크라드 청정누리공원	양남면 주상절리
김포읍 전촌옹굴(사릉굴·단용굴)	김포읍 김포공설시장	문무대왕면 전통명주전시장	양남면 물빛 사랑길 & 허서해안공원
김포읍 김포해곡길	김포읍 나정고온모래해변	문무대왕면 골굴사·김은사지	양남면 주상절리 전망대
김포읍 오류관광장	김포읍 전촌술밭해변	문무대왕면 봉길대왕암해변·문무대왕릉	양남면 관성술밭해변
김포읍 송대말뚝대	김포읍 오류고아리해변	문무대왕면 한국수력원자력 홍보관	양남면 읍천항 벽화마을

## 충남도, 전세계 17개국 참가 보령국제요트대회 돛 올랐다

160여 선수들 24일부터 30일까지 진검승부...무료 요트체험 교실도 운영



전세계 4개 대륙, 17개국 16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보령국제요트대회가 돛을 올렸다.

충남도는 국내 첫 아시아요트연맹(ASAF) 공인 요트대회인 '제3회 아시아인 컨 보령국제요트대회'가 24일부터 30일까지 보령요트경기장과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대회는 이날 선수 등록을 시작으로, 25일 오프쇼어 경기 '오섬 아일랜드 레이스'를 펼치고, 26일 개회식 이후 폐회식인 30일까지 매일 본선 경기를 치른다.

선수들은 킬보트 J70 종목과 1인용 딩기요트인 옵티미스트 종목에서 그동안 같고 닷은 실력을 겨룬다.

킬보트 J70 종목은 단거리 국가대항전과 중장거리 경기인 '오섬 아일랜드 레이스'가 진행되며, 개최국인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덴마크, 튀르키예, 호주, 뉴질랜드, 오만,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총 13개국에서 참가한다.

1인용 딩기요트인 옵티미스트는 유소년 경기로 진행되며, 개최국 한국과 그리스, 싱가포르, 일본, 캄보디아, 대만 등 총 9개국에서 참가한다.

도는 대회 기간 보령머드축제가 열리는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앞 수역에 부대행사로 웨미리조트, 카약, 바다생존수영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요트체험 교실도 운영한다.

체험교실 사전접수는 높은 관심으로 이미 마감됐으나, 대회기간 중 머드축제

를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추가로 체험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선수들이 지금껏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령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요트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충남요트협회가 주최하고, 보령국제요트대회 조직위가 주관하며, 해양수산부, 도, 보령시, 대한요트협회, 보령축제관광재단, 발흥불량 등이 후원한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7월 25일 사령**

**경기도청·경기일보**

**김범상 취재부 국장 발령**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방문

### 호우 지역 현장방문... 피해 농업인 위로 및 지원대책 강구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7월 21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봉화, 영주, 문경지역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농업인들을 위로했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내린 역대급 폭우는 도내 각지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비롯해 주거시설의 침수·파괴로 인한 재산피해와 함께 농작물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날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호우로 인해 특히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봉화군 재산면·봉성면 및 영주시 조와동·봉현면의 농가를 비롯해 문경시 흥덕동 소재의 농기계임대사업소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인과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했으며,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지원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해 병해충과 질병발생을 예방해 농작물과 가축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용 중인 농기계가 침수피해를 입어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농기계를 정비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남영숙 위원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여건의 지역 농업인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서 "무슨 말로든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빠른 시일내 복구를 완료해 농업인들이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을, 부위원장에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 정준호 의원(은평3,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춘선 의원은 그간 저출생·난임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개발 연구회'를 이끌며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려 하는 인물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특활활동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책임자로 인정받고 있다.

박춘선 위원장은 "인구소멸의 문턱에서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들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여 단 한 명이라도 서울시의 신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특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위원장 선임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신동원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정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정준호 부위원장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한시적 활동이지만, 위원님들 개개인의 열정이 가득해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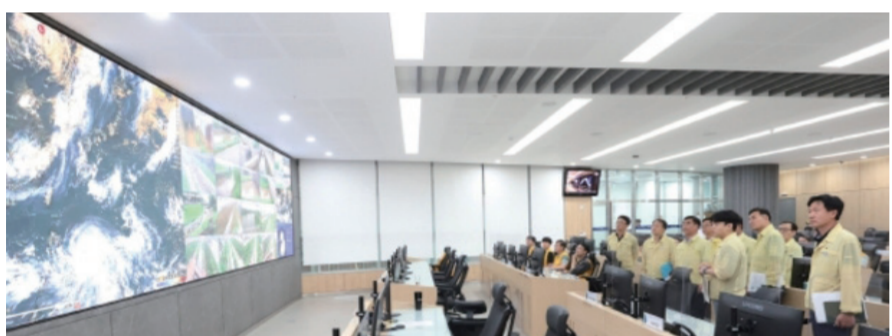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저출생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공동 대응 출발점이다.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 제도 정비, 자녀 양육환경 개선, 주거복지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일·생활 균형 문제, 복지체계 개선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관련 조례 제·개정, 필요예산 반영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동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했으며, 12명의 위원들이 2023년 12월까지 6개월간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집중호우 재난상황 점검 및 비상대응 근무자 격려

### 도민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재난대응 최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를 찾아 7월 22일부터 내린 집중호우 대응상황을 점검

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경기도는 7월 23일 04시 이후 경기 북서부를 중심으로 강한비가 내리기 시작해 누적강수량(23일 15시 기준) 평균 62.9mm, 특히 화성 107

mm, 파주 99.5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염 의장은 "지난 15일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으로 경기도민 세 명이 희생된 만큼, 도내 지하차도 및 침수우려 도로, 산사태·급경사지, 반지하 취락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여러분의 노고가 어디선가 위태로움에 처해 있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 한분 한분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근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기온상승과 기후변화 대응은 세계 각국의 공동 과제이자, 선진국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재난상황에 대비한 선제적인 사전 대비 체계 점검 및 이를 반영한

새로운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12세대 34명이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해 있으며, 경기도는 7월 26일까지 국지성 호우가 예보되어 있어, 시설물 관리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가 요구된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련 브리핑을 받은 염종현 의장은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최근 유해화학물질 해의배출 우편물류로 인한 도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현재 관계기관 회의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관련 신고 접수 시 세심한 민원 응대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병삼/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인특례시 선정 환영

### 윤원균 의장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 아끼지 않겠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특례시를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인구 남사·이동 원철 단시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미래연구 단지를 잇는 1244만㎡ 일대를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발표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진흥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 도로·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생활편의 시설 지원,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윤원균 의장은 "용인특례시가 특화단지에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성공

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 반영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3대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연구·교육 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도록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김병삼/기자



# 전라남도의의회,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현숙 의원 선출

### "전남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힘쓸 것"



전라남도의의회는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부위원장은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의회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는 전남도 양성평등과 여성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을 마련코자 구성·설치됐다.

박현숙 위원장은 "전남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데 위원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여성 정책은 사회의 많은 영역과 연관되어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보여, 여러

상임위의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 발전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현숙 의원이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미숙(신안2), 윤명희(장흥2), 한춘옥(순천2), 오미화(영광2), 전서현(국민인합 비례), 장은영(더불어민주당 비례), 김미경(정의당 비례), 박경미(광양4), 한수경(순천7) 의원 10인으로 구성되어 전남 여성권의 신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구정책연구원 현장방문

### 7월21일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02회 임시회 기간인 7월 21일, 동구 신천동(동대구로 461)에 위치한 대구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02회 임시회를 맞아 대구시 중장기 발전 방향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대구정책연구원의 운영 상황 등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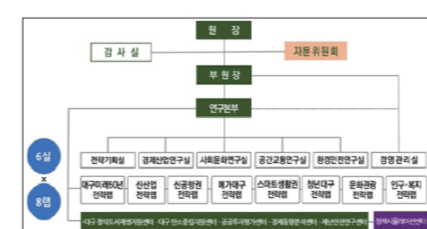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관계자로 부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23년 2월 공식 출범한 '대구정책연구원'은 현재 '6 연구실'과 특화 정책개발을 위한 '8 전략팀'을 운영 중

으로 전략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보조사업 등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구시 주요 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을 위해 다양한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연구 실적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에 힘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수진, 발행인: 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직원: 청소년책임보좌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 지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 내선 (113)      부 통 산 부: 내선 (117)  
 광 고: 1899.9659      경 계 부: 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키야빌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성동구, 성동경찰서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어린이 교통안전 우려 민원 지속 제기되는 금호초 인근에서 사고 예방 위해 마련

서울 성동구가 지난 5일 성동경찰서 및 성동주부교통봉사대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및 불법주정차 이륜차 합동계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 지역은 이륜차 불법주정차와 어린이 교통안전 우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금호초등학교 인근으로, 구는 이륜차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과 함께 계도와 과태료 부과를 했으며 이륜차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했다.

또한 지난 5월 위촉되어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동주부교통봉사대 회원들은 불법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서행 운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에 대하여 홍보했으며 아이들을 위한 교통안전 지도에 진행했다.

한편 구에서는 지난 5월에도 성동경

찰서와 이륜차 불법주정차 방지 홍보를 위해 왕십리역과 마장지역에서 합동 단속을 시행했고, 6월에는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방지하고자 성수동 내 경동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이륜차 불법주정차 계도 단속 및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정원우 성동구청장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학교 앞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학부모님들로부터 들었다."며 "앞으로도 성동경찰서와의 지속적인 합동 단속 및 주부교통봉사대의 합동 캠페인 시행으로 운전자의 올바른 교통질서 의식이 함양과 더불어 성동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 관악구,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방학 지원 나선다

#### 7월부터 8월까지 다양한 사업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여름방학 지원

관악구가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방학을 위해 지원사업에 나섰다.

먼저 구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700여 명에게 육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구는 매월 급식 대상 아동에게 1식당 8천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아동들이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취학, 미취학 아동으로 지원방법은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과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꿈나무 카드'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도시락'이 있다.

특히 올해는 아동들의 편의성을 위해 편의점에서 식품 구매 시 담야 갈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구는 오는 8월까지 여름방학 기간 내 총 28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식재료 보관

상태와 유통기한 확인', '급식 조리구의 위생적 관리', '도시락 전달 과정과 수령 확인' 등이다.

구는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식중독 교육자료를 배부하는 등 아동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룸 카페, 마약 음료 등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도 실시한다.

관악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고 신림역과 서울대입구역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표지 부착 위반 여부', '편의점,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대상 위 적발 시 계도활동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금천구, 주민주도형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행사' 추진시동

#### '축제 거버넌스' 구성,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

금천구는 10월 개최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축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7월 19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축제 거버넌스'는 주민(시흥5동주민자치위원)과 금천문화원, 금천문화재단, 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 청소년국악단 등 금천구 문화예술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비상설 자문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천구만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연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10월 말까지 3회에 걸쳐 행사 프로그램, 공연 구성, 진행사항 최종 점검, 평가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행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어

머니(혜경궁 홍씨)와 함께 창덕궁에서 금천구 시흥행궁을 거쳐 수원화성으로 떠났던 여정을 순차적으로 재현하는 행사다.

그중 '시흥행궁' 구간은 금천구청 입구 삼거리부터 시흥행궁터까지 약 1.8km이다. 총인원 200여 명, 말 20필을 동원해 '거리 행진', '정조의 교서 선포', '격쟁 상황극'을 재현하고, 전통 공연과 함께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는 정조대왕 능행차 당시 유일하게 하룻밤 머물렀던 시흥행궁이 있고, 격쟁을 통해 백성과 직접 소통했던 역사도시다"라며, "소통과 주민참여의 도시를 주제로 해 재현행사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서초구의 20억 만듭니다. 2024년도 서초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투표 실시

#### 2024년도 20억원 규모의 서초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투표 실시

**투표일시** 7. 26.(수) - 8. 9.(수) 14일간

**투표방법** 스마트폰 앱보팅 앱 또는 서울시 앱보팅 홈페이지 [https://moting.seoul.go.kr 서초구 주민참여예산 투표 참여]

**문의** 서초구청 기획예산과 ☎02.2155.6381

서울 서초구가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24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전자투표를 진행한다.

구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를 거쳐 선정할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총 2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을 '구 단위 사업'과 '동 단위 사업'으로 구분해 투표한다.

'구 단위 사업'이란 지역 내 4개 권역(서초, 반포, 방배, 양재) 가운데 2개 이상 권역에 해당되는 최대 3억원 상당의 사업을 말한다. '동 단위 사업'은 1개 권역을 위한 사업으로 최대 1억원 규모다.

투표는 구 단위 사업 2개, 각 동 권역별 2개 사업을 기표해 개인별 총 10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서울시 앱보팅(전자투표)' 스마트폰 어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음에 드는 사업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투표 참여 대상은 서초구민 또는 지역 내 직장인이다. 투표 결과는 앱보

팅 결과 다득표순으로 결정되며, 올해 말 구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그간 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주민 제안 사업들을 접수받고, 사업부서의 검토 및 동 지역회의를 거쳐 적정사업을 검토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제안사업 공모를 통하여 생활공간형 주민친화 사업으로 35개 사업 총 19억 4천만원을 선정해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해 선정된 대표적 사업은 주민과 어르신, 문화와 여가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 마련 프로젝트 'Seocho+ Place', 동주민센터 공구은행 대여물품 확대, 흡사, 당근이세요? (사람이 만나고 잠시 쉬는 장소 만들기) 등이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주민제안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좋은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흥수/기자

## 송파구, '디지털 송파 홍보관' 구축...7월부터 시범 운영

####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홍보관 첫 구축...홍보 채널 다양화 시도

송파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송파 홍보관'을 구축하고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디지털 송파 홍보관'은 지역의 역사 문화 안내부터 공연 및 프로그램 예약, 구정 주요 소식 등 송파구의 다양한 정보를 모아 놓은 온라인 홍보관이다.

구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 새로운 홍보 채널을 발굴해 구정 홍보 효과를 높이고,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처음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홍보관 구축에 나섰다.

공간은 크게 6개로 구성됐다. 송파구 소개와 각종 제도, 홍보자료를 볼 수 있는 '구정홍보관', 독립 공간에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회의실', 송파구 문화재 정보와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를 연동한 '박물관', 구민 이벤트가 진행되는 'OX퀴즈룸', 온라인 행사, 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유가 가능한 '대강당', 구민 참여작품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는 '전시관'이다.

특히, '구정홍보관'에서는 정보 확인과 프로그램 신청까지 할 수 있다.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 및 홍보 책자 구독은 물론 송파런 등 교육 프로그램 신청과 공연 예약, 송파책박물관 가상전시 연계 등으로 구민 편의를 높였다. 타 기관

에서 홍보 협업을 요청하는 구정홍보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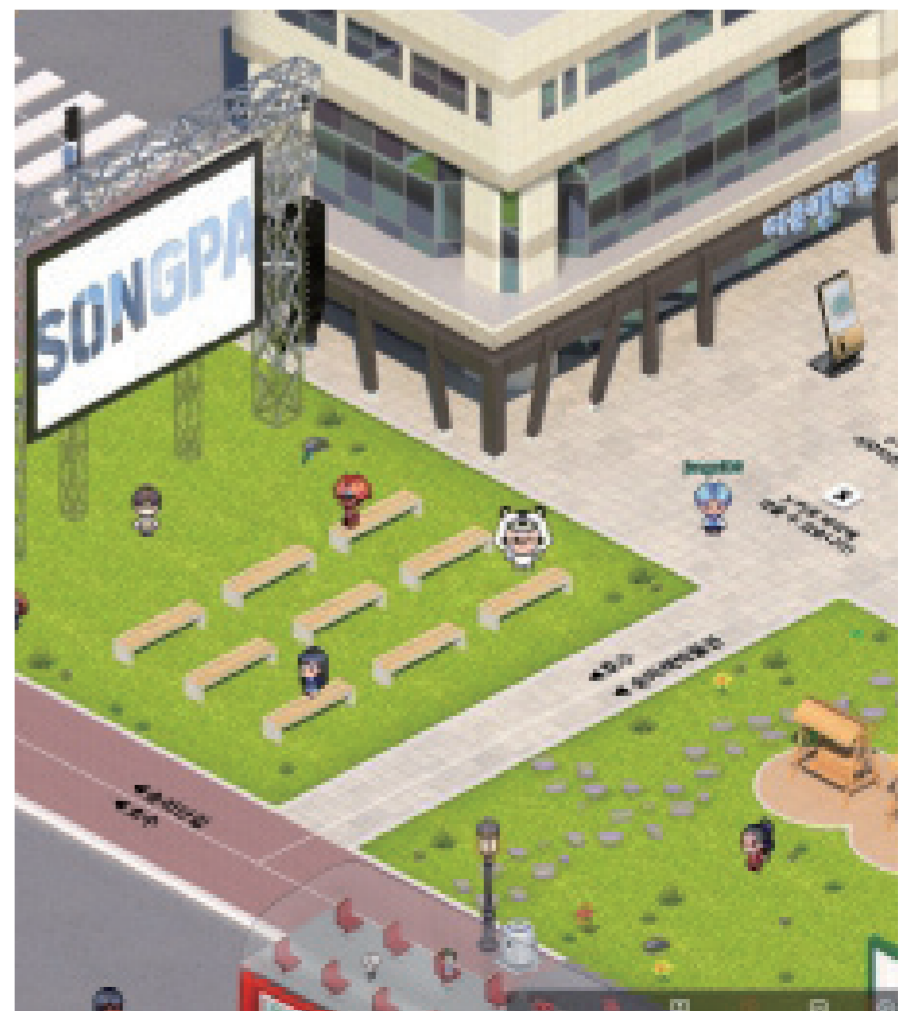
'회의실'에서는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화상 소통이 가능하다. 화상 회의가 일상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기능을 탑재한 것이다. 회의실에 입장하면 독립된 공간에서 초대된 대상에 한해 음성 및 화상 대화가 이뤄진다.

이 밖에도 댓글 기능이 있는 방명록, 내 공간 만들기 등 다양한 기능과 구정 외부 공간에 선택호수, 송리단길, 롯데월드타워 등을 배치해 재미와 활용 폭을 넓혔다.

'디지털 송파 홍보관'은 송파구청 누리집 내 '미디어소통' 메뉴에서 전용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전용 링크, 전용 앱(ZEP)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다각도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사용이 쉽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시범운영을 거쳐 사업 효과성, 서울시 메타버스 서비스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구민들이 보다 손쉽게 송파구 소식을 접하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흥수/기자





# 김동연 “더 큰 평화 다짐하는 계기... 평화로 가는 길,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중립국감독위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소장하고 있던 정전협정서가 경기도 품에 안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내 갤러리그리브스에서 열린 '정전협정서 전달식'에 참가해 이보 버제너(Ivo Burgener) 중립국감독위위원회 스위스 대표로부터 정전협정서 소장본을 전달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정전협정 당시의 사본을 중립국감독위위원회, 특히 스위스 대표단이 소장하고 계셨던 것을 경기도에 전달해주는 뜻깊은 날이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협정서 사본을 받으면서 경기도는 영문으로 된 본문과 지도를 함께 갖춘 유일한 기관이 됐다. 일반에도 전시해 많은 국민들이 보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사를 통해 오래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것도 기억하면서 앞으로 더 큰 평화를 다짐하는 좋은 계기

가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가 평화의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굳건한 안보를 중심으로 평화로 가는 길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보 버제너 중립국감독위위원회 스위스 대표는 “새로 개장하는 전시관(캠프그리브스 전시관)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정전협정서 사본을 드리기로 했다”라며 “평화와 안정을 염원하는 모든 분께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받은 정전협정서 소장본은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감독위위원회에서 협정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협정 이후 원본을 복사한 문건으로 협정문과 지도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협정서 원본은 미국, 중국, 북한에만 있다. 도는 해당 소장본은 중립위에서 오랜 기간 보관해온 정전협정서 시기에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전협정서에는 협정 체결의 목적,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둥하이,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중립위 스위스대표단은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전시관에 각종 전시물품 등을 기증해오는 등 경기북부 발전에 동참해왔다. 대표단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서를 도에 무상 임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겔 라플란트(Miguel La Plante) 스위스 대사대리, 세바스티안 러잉(Sebastian RÖING) 스웨덴 대사대리, 페르손 헤르리트(Persson Herlitz) 중립위 스위스 대표, 박정·이용우·홍정민 국회 의원과 파주시 및 기재위 소속 도의원들, 김경일 파주시장도 함께했다.

갤러리그리브스는 파주 캠프그리브스에 조성된 전시관으로, 원래 민통선 이북 미군이 주둔하던 곳이었지

만 경기도가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해 2021년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했다.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학도병, 참전용사, 중군기자 등에 대한 전시와 정전협정을 테마로 한 전시도 하고 있다.

이번 정전협정서 소장본은 캠프그리브스 내에 별도로 안치될 예정이며, 영인본이 갤러리그리브스 내에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의 제목은 '세 개의 선'으로 이는 정전협정으로 남북을 가른 세 개의 선, 각각 군사분계선, 남북한계선, 북방한계선을 의미한다. 행사 종료 후 즉시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며,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타고 넘어오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 20일 평화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을 진행 중이다. 도는 11월까지 비무장지대의 생태·평화·역사 가치를 알리는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김범상/기자



## 화성시 수공예 아트마켓 '생활시장화인', 인사동에 문화로 준비한 만찬을 차려내다!

생활시장화인 기획전시 '화인을 담다; 공예만찬' 개최



(재)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생활문화센터는 7월 24일까지 인사동 KCDF(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갤러리에서 '화성시 생활시장화인' 기획전시 '화인을 담다'를 진행한다.

'생활시장화인'은 화성시 공방 운영자인 시민운영자(33개 공방, 34명)와 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수공예 아트마켓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공예 작가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개최되는 전국단위의 수공예 특화 아트마켓이다.

이번 전시에는 화성시 수공예의 높은 문화적 수준과 화성시 대표 수공예 아트마켓 '생활시장화인'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시민운영자 23인이 참여했다. 전시는 2전시장과 3전시장에서 진행된다. 2전시장은 각각의 참여 작가들이 공예 활동을 상징화해 그림을 그려 넣은 점시와

작가의 도구를 전시한 공예 만찬 원탁 테이블, 각각의 개성과 기술이 돋보이는 23인의 참여 작가 작품으로 꾸며져 있다. 3전시장은 생활시장화인의 활동사진으로 꾸며진 휴게존으로 관람객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했다.

화성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 '화인을 담다; 공예 만찬'은 일상이 예술이라는 가치 아래, 식탁에서 예술과 함께 아름다운 대화와 삶이 피어나길 소망하며, 귀한 손님을 초대해 일상과 문화를 향유하는 만찬을 공예 작품으로 차려냈다”며 “전시된 작품 모두 작가의 이야기와 정성이 가득 담겨 있기에 일상 속 소중한 사람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시는 7월 24일까지 KCDF 갤러리에서 별도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전시장에는 참여 작가인 도슨트가 상주하고 있어 전시 작품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전시 및 '화성시 생활시장화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문화센터 누리집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화성시문화재단 생활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시현/기자

##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박람회 개최

여성 구직자 900명 참여...현장 면접·증명사진 촬영 인기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난 19일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 이번 취업박람회는 전 시북합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현장 채용 행사는 3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900명이 몰릴 정도였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매해 특화 집중 채용 행사 '호호일자리찾는날'을 진행한다. 올해 특화 분야는 제조·생산, 시간제근무(파트타임), 보건의료에 이어서 전 시북합산업의 항공·호텔·관광 분야이다.



센터는 지난 7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채용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90여 개의 구인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중 긴급한 채용이 필요한 10개 기업이 현장 행사에 참여해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화장과 증명사진 촬영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됐는데, 부대 행사에만 500명의 참가자가 몰렸다.

이날 카지노 딜러, 호텔 객실 관리자, 디지털 튜터 등 다양한 직업의 직무 설명회가 열렸다. 직무설명회에는 150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한편 센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온라인 상담 시스템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 서비스'를 활용해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동시에 고양고용노동지청에서 개발한 '트리플메타타운'은 가상 공간에서 기업 면접을 실시했다. 참여자는 “현장 행사에 참가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가상공간에서 전문가의 세심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영기/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3일 처인구 수해 취약지역 찾아 호우 대비상태 점검

22일에도 수지구·기흥구 취약지역 방문하는 등 주말에도 쉬지 않고 점검 또 점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장이 22일에 이어 23일에도 용인의 도로, 하천, 공사 현장 등을 찾아 수해 예방을 위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22일 수지구·기흥구 취약지역을 살펴본 이 시장은 23일에는 처인구의 포천-세종 고속도로 하부 도로(모현읍 매산리 532-1)와 경안천 고림동 지역, 역북동 아파트 공사현장을 차례로 찾았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현장과 주변 지역을 둘러본 이 시장은 인근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의 배수 상태를 점검하고 주민들로부터 불편 사항을 들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하부도로에 물이 가득 차서 주민의 통행 불편이 야기되자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 하천으로 연결하는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현장도 살펴본 이 시장은 집수정에서 인근 하천까지 150미터 거리에 대해 배수관 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보고를 받

고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회숙 모현읍 매산4리 이장이 “비가 많이 오면 도로 주변이 진흙탕이 되어버려 다니기 불편하다”고 하자 이 시장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이 끝나면 시기에 맞춰서 하부도로를 전면 포장하고 정비한다고 하는데 시는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고려해서 사람이 다니는 곳은 진흙밭이 되지 않도록 통행로 정비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경안천 대대천 합류지점(고림동 966)을 방문해 하천 준설과 배수 상태를 점검했다. 주변 두 곳에 침수 경보 시스템을 설치한 시는 내년까지 11억원을 투입해 이곳 하천으로 흐르는 하수를 분산시켜 하천의 물이 도로로 역류되는 것을 막는 공사를 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물의 역류로 이어 주된 도로가 침수된 만큼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하수 분산 공사를 최

대한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역북서희스타일즈 공사현장(역북동 89-25)에서는 3만8000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912세대를 2026년까지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 공사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 시장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배수로 4곳 설치 등의 보고 받고 침사지(토사재해 예방을 위한 연못)와 수벽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관계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장마가 끝나면 태풍이 올 수도 있으니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22일엔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와 고기저수지, 산사태 취약지역인 고기공 산7-1번지, 죽전지하차도(죽전동 142), 삼막곡 제1지하차도(보정동 1019-223) 등에서 집중호우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지난 13일과 지난달 29일에도 비가 많이 내리자 고기교와 그 주변을 돌며 수해 방지를 위한 대비 상태를 확인한 바 있다.

김범상/기자

## 수원시, 아주대학교 학생 봉사단과 함께 '몽골 수원시민의 숲' 찾아 봉사활동

아주대 학부생·교직원 등 60명 참여



아주대학교 봉사단이 17일에서 21일까지 '몽골 수원시민의 숲'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수원시 관계자와 아주대학교 학생, 시민봉사단 등 60명은 수원시민의 숲

을 방문해 숲 실태, 나무의 생육상태 등을 조사하고, 조림지를 관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수원시는 몽골 내 사막 확산을 막고, 황사를 줄이기 위해 2011년 몽골 정

부·(사)푸른아시아와 협약을 체결하고 튜브아이막(道) 에르네 숲(郡) 지역에 숲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수원시민의 숲'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ha 넓이(10만㎡) 땅에 나무 1만 그루를 심어, 10년 동안 100ha 땅에 나무 10만 그루를 심는 사업이었다. 목표였던 '10만 그루 식재'는 2016년 조기 달성했고, 2018년까지 소나무·포플러·버드나무·비슬나무·호호린드·차차르간 등 6종 10만 4770그루를 심었다.

아주대는 2015년부터 수원시민의 숲 사업에 참여해 봉사활동, 식목행사, 현지 주민·대학생과 교류 등에 참여해 왔다.

아주대학교 봉사단은 이번 방문에서 울란바토르대학 교류 행사 등에 참여해 지구 환경 실태를 알리고, 해외 구호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민의 숲 사업에 항상 협력해 주신 아주대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수원시민의 숲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 20개소 신규 모집 8월 9일까지 신청, 1·2차 심사 거쳐 9월 말 최종 지정

인천시가 '2026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에 나선다.

인천광역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공공형 어린이집 20개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9일까지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 및 평가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지정 목표 물량은 20개소이다. 당초 목표는 10개소였으나, 인천시는 2026년까지 인천시 전체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목표를 상향시켰다. 7월 말 현재 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은 총 123개소로, 신규 지정 목표인 20개소를 모두 채우면 총 143개소까지 늘어나게 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가진 곳을 선정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평가 등급이 최고 등급인 어린이집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평소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확보, 급·간식비 적정 수준 지출, 시설의 적정성 및 안정성 유지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했는지를 평가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군·구에서 1차 심사 후, 시에서 2차 심사에 지정 대상을 정하는데, 오는 9월 말에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유효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3년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유아반 활성화 지원금, 누리과정 품질개선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그중 누리과정 품질개선비는 올해 제1회 추경에 새로 편성한 신규 사업이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부모와 아이가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보육 교직원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어린이집이 우수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7월 4일 '공보육 어린이집'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간 300개소를 확충해 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보육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나뉜다.

김종남/기자

## 김동연의도민청원1호 동인선 조속 착공 약속. 연내 현실화 가능성 커져

### 김동연 지사, 지난 2월 동인선 공사 현장 찾아 조속한 재검토 완료 촉구 약속



경기도 도민청원 1호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동인선) 건설공사 전 구간 조속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사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 조속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약속도 연내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타당성 조사 대상이나 매출 비용이 큰 경우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4개 역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28일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착공하지 못한 남은 구간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건의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지사 약속 이후 경기도는 3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의 열망을 담아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하는 등 조속한 심의 완료를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와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가 함께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연내 착공을 위한 기관별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

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가 완료된 만큼 올 연말까지 동인선 전 구간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실무협의회를 이어가는 한편 국가철도공단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 완료 등의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도민청원 성립요건을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 청원은 지난 1월 14일 처음 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후 19일 만인 2월 2일 도지사 답변 성립요건인 1만 명을 처음 돌파해 도민청원 1호가



됐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화성 동탄에서 수원, 용인, 의왕을 거쳐 안양 인덕원을 잇는 37.1km 길이의 복선전철 노선이다.

김범상/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 휴대전화 문자 소통 1만 건 돌파

### 96% 검토 완료해 답장 보내...시민 관심·의견 직접 챙기는 창구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 문자 수신 전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010-5920-0184)를 통해 접수한 정책 제안이나 민원이 11개월 만에 1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지난해 9월 16일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성남시장에게 바란다' 휴대전화 문자 소통 서비스 이용 건수를 1만21건(월평균 911건)으로 집계했다.

분야별로 교통·도로·주차 분야의 민원과 정책 제안이 3283건(3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축·주택·재개발 분야 1852건(18.5%), 환경·청소 분야 943건(9.4%), 공원·녹지 분야 882건(8.8%), 교육·문화·체육 분야 824

건(8.2%), 재난·안전 분야 469건(4.7%) 등의 순이었다.

접수 건수의 96%인 9628건은 검토 완료해 시민에게 처리 여부를 답장으로 보내 알려졌다.

민선 8기 성남시 공약사업 진행 상황, 도로 포트홀 보수, 탄천 시설물 보수 등이 해당한다.

나머지 4%(393건)는 해당 부서 검토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 소통 서비스는 시민들의 관심 사항과 의견을 시장이 직접 챙기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 부천시 신중년, 가족 위해 요리하는 아버지로 변신!

### 부천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 아버지 요리교실 종강...신중년 남성 15명 참여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5060세대 아버지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는 '아버지요리교실'을 지난 20일 종강했다고 밝혔다.

아버지요리교실은 센터가 개소한 2016년부터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요리가 어색한 5060세대 아버지들의 건강한 식사 해결과 직접 만든 요리를 매개로 가정에서 가족과의 소통을 돕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특히 먼저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의 추천을 통해 요리교실을 신청하는 수강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요리교실에 대한 신중년 남성들의 호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요리교실은 15명의 신중년이 참여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조영희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요리 강의는 계절에 맞는 밑반찬과

국, 여름 보양식, 시판 소스를 활용하여 만든 파스타, 증편샌드위치, 전통주 빗기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마지막 증편샌드위치는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고마운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강생 A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두부조림 한 개 만드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식사를 챙겨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종강 소감을 밝혔다.

조용의 부천시장은 "사회관계나 가정생활의 역할 변화에 맞춰 5060세대의 남성들을 위한 '아버지요리교실' 같은 프로그램은 가족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정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신중년 남성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 지하차도 '침수위험 자동차단시스템' 점검

### "언제라도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모든 부서 역할 빈틈없이 해달라"

오는 22일부터 다시 비 예보가 발표된 가운데, 최대호 안양시장이 21일 만안구 청원지하차도를 찾아 침수위험 자동차단시스템을 점검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 김승건 만안구청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및 관련 부서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지하차도 및 주변 도로를 살펴보고 시설물을 점검했다.

특히, 침수 시 지하차도 주출입구를 차단하는 침수위험 자동차단시스템을 임시 작동시켜보고, 경찰서와 협조해 교통 통제 등을 시연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폭우, 태풍 등으로 언제든지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언제라도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모든 부서가 맡은 역할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지시했다.

안양시는 총 17억원을 투입해 지난달 6월 만안구 주점·청원지하차도, 동안구 범계·호계·평촌·비산지하차도 등 총 6곳에 경기도 최초로 침수위험 자동차단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침수위험 자동차단시스템은 침수 시 차량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차로제어시스템(Lane Control System)으로, 지하차도 및 도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CCTV, 비상시 출입 통제를 알리는 도로전광표지 및 스피커, 차량 출입을 막는 차단기 등을 갖췄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등 안양시 관계자와 함께 동안구

비산지하차도를 방문하고 침수위험 자동차단시스템을 점검했다.

신우용/기자



##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31일까지 시행



시흥시는 원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 대상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도시 교통 정비지역 내에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 이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대해 그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7월 31일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총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 기간(2022년 8월 1일~2023년 7월 31일)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매수자는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고,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안내문이 다음 달 초 우편으로 발송되고, 부담금 감면과 용도 변경 신청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에 우편(시청로 20, 별관 3층 교통행정과 접수정) 또는 팩스(031-380-5318)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앞서 지난해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은 7,247건(28억9,300만원) 징수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각 8%, 12% 증가한 7,826건/32억4,000만원 징수를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 전남도, 해양수산 신지식인에 도전하세요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7개 분야 5명 내외...8월 9일까지 접수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 분야 신지식인 및 기술개발, 공유로 수산업과 어촌 혁신을 주도할 '2023년 해양수산 신지식인' 후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통·가공, 해면양식, 내수면양식, 어구·어법, 레저를 포함한 어촌관광, 어촌 6차산업, 기타 등 7개 분야에서 5명 내외를 선발한다.

'2023년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 접수를 바라는 사람은 8월 9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해양수산과학원 각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8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차 현지 조사를 통해 적격자를 추천하고 10월에 해양수산부의 전문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2명이 선정됐으며

전남에선 68명이 선정돼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도 전국 4명 중 전남에서 1위 대상과 3위 우수상 등 2명이 선정됐다.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자에게 10월 말 해양수산 인재 육성 날 행사에서 신지식인 인증서와 포상을 전달한다. 향후 신규 어업인 대상 멘토링, 실습장 지원, 강연 등 수산인력 양성과 어촌발전 등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김충남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은 "급변하는 수산업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선 새로운 지식습득과 창의적인 발상,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분야별 신지식인을 적극 발굴하고 새로운 수산기술과 혁신모델을 확산시켜 선진 수산업으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최대 195.5mm폭우' 운병태 나주시장, 침수·붕괴 피해 현장 긴급 복구 지시

### 영산중학교 건물 뒤편 경사지 붕괴 토사 유입, 인명피해 없어

전라남도 나주시가 24일 최대 195.5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수해 위험 가구 주민을 긴급 대피시켰다. 국도 23호선 도로부 유실 구간, 국도 1호선 통로박스 등 도로 침수 위험 구간 통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전 6시경에는 영산중학교 건물 뒤편 경사지가 붕괴되면서 토사가 행정실 복도 유리창을 뚫고 건물 내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학 기간인데다 오전 시간대였기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복도 유리창을 비롯한 건물 시설 일부가 파손됐다.

현장을 방문한 운병태 시장은 교육청,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건물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한편 비가 그친 이후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덕동~세지방향 국도 23호선 도로부가 유실되면서 현재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전면 통제구간은 '부덕동~세지방향 지방도 23호선, '국도 13호선 왕곡장산 조산국밥 인근 통로박스', '국도 1호선 다시 월태 문평천 통로박스', '국도 1호선 다시 월태 다시교차로 상행선', '면도103호선 다시 월태 고구려대학교 인근', '송월동 해밀보리밭 앞 도로'이다.

시도32호선 다시 월태 원동마을 인근, 면도104호선 다시 가흥 초동마을 인근 도로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통제가 해제됐다.

노안 장동리 내동제, 문평 옥당리 금당제, 다시 송촌리 송정제 등 월류 위험이 있는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통해 월류 시 주민 대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나주 지역에는 오늘과 익일 약 13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이날 오전 송월동 도로 통제구간을 시작으로 다시면 행정복지센터, 문평면 양산마을회관, 영산중학교, 부덕동~세지방향 지방도 23호선 도로 유실 현장 등 연이어 방문에 피해 현장과 주민들의 안부를 살폈다.

주민들과 만난 윤 시장은 "긴급 대피로 임시 거처에 머무시는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생필품, 구호물품을 꼼꼼히 지원하고 살피겠다"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시장은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중학교 건물 경사지 붕괴, 도로 유실, 대경지 침수 등 신속한 피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남원시, 혼자 살아도 안심되는 주거환경 조성

##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 추진

남원시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가정용 CCTV 또는 안심 장비 3종 세트를 구성해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범죄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되는 장비 중 가정용 CCTV는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어 카메라를 현관문에 설치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모바일 앱의 SOS 비상 버튼을 눌러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에는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방문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모바일 앱으로 알림을 전송해 줄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에게 위치 공유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안심 장비 3종 세트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으로 구성되어 3종 세트 전부 또는 일부 장비를 신청자 주거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관내 1인 가구(18세 이상~65세 미만) 또는 한부모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현재 14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예산 소진될 때까지 추가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최근 1인 가구

가 증가 추세에 있어 다각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혼자 살고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가정용 CCTV

안심장비 3종세트

# 함평군, 지역 미술·공예인 작품 전시회 개최

'예향의 고장' 전남 함평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미술과 공예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군은 "'제7회 함평미술인협회전'과 '제4회 함평공예인협회전'이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 제1·2전시실에서 개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함평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남도 미술가치 전승을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서 미술인협회 작가들은 한국화, 유화, 수채화, 사진, 서예 작품과 더불어 최근 협회에 가입한 젊은 캘리그래피 작가들의 작품까지 선보이고 있어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아울러, 공예인협회 회원들은 실용성과 미를 겸비한 다채로운 공예작품을 전시하고 있고 가족공예, 서각, 목가구, 한지공예, 질풍공예, 지승공예 등 일상에서 만나는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개막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운영위원장, 함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 미술인 및 공예인 협회 회원과 관람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함평 지역 작가들의 뛰어난 예술성에 감명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미술과 문화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영진/기자

## 함평 활동 작가 50여 명 다채로운 작품 선보여



# 순천만정원박람회, 28일 설랑계 영화가 있는 밤 '실 무비' 상영

### 28일 저녁 8시, 설랑계에서 영화 '우리들' 상영! 박람회 관람객 누구나 관람 가능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과 공동 주관해 오는 28일 저녁 8시, 순천만국제정원 내 가든스테이 순천 설랑계 원형광장에서 '영화가 있는 밤' '실 무비'로 영화 '우리들'(윤가은 감독)을 상영한다.

'실 무비'는 여름철 고품격 문화의 장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와 함께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의 사전 붐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영작인 '우리들'은 어린 시절 학교 생활과 친구와의 관계 속 소녀들의 요동치는 갈등과 고민, 복잡미묘한 감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담은 독립영화이다. 이 영화는 초등 4학년 교과서 수록작이자 2017년 제53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시나리오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다.

조직위와 두드림은 여름밤 설랑계가 주는 편안한 분위기 속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공감대를 이루며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기에 이번 상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 무비'는 설랑계 숙박객뿐만 아니라 박람회를 방문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미리 돛 자리를 준비하면 좀 더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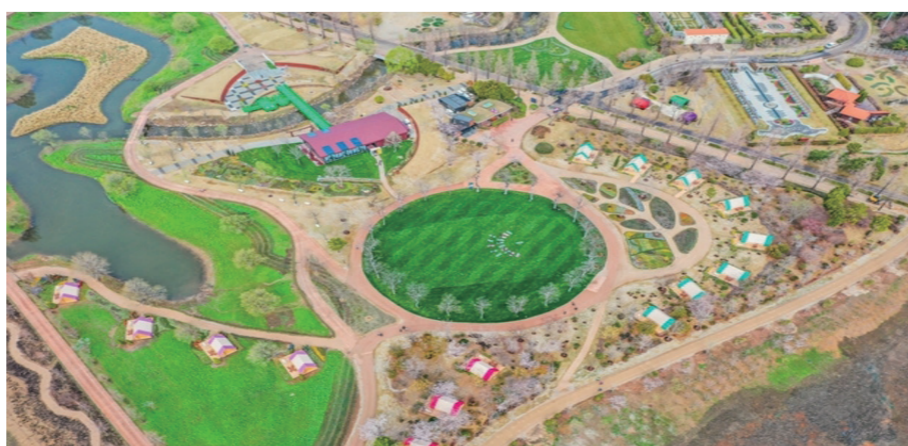
조직위 관계자는 "실 무비 상영을 통해 한 여름밤 설랑계가 주는 낭만을 만끽하시기 바라며, 고품격 휴가,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원하신다면 여름철 최고의 휴양지인 정원박람회장을 찾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설랑계는 정원에서 즐기는 숙박 프로그램이자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로 평균 숙박률 95%를 넘어서며,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

직위는 여름철 고객 맛을 위해 새로운 화훼 연출과 더불어 발갈랑계, 그리랑계 등 다양한 정원 속 활동과 어싱, 요가 등 고품격 웰니스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천 시에는 한방 탄산족욕, 한방차 시음 등 국가정원 한방체험센터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한편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 (사)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하고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가 협력해 오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순천시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이승준/기자



# 청정 완도 수산물, 베트남·라오스 시장 공략 가속도

### 완도군 해외시장개척단, 전북·해조류 등 수산물 판촉전 개최

완도군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활발하다.

지난 7월 15일에는 베트남 하노이 소재 케이마켓 내에서 전라남도 상설 판매점 입점식과 완도군 해외시장 개척단의 수산 제품 판촉전을 개최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베트남 하노이에 전라남도 상설 판매점의 첫 입점 기념과 더불어 완도군 수산 제품이 판매장 대부분을 점유해 더욱 의미가 컸다고 전했다.

전남 상설 판매점 입점 업체는 총 10개 업체이며, 그중 판촉전 참가 업체는 6개 업체로 다시마전복수산물영어조합법인, (유)대한물산, (주)바다명가, 완도다이어업회사법인, (주)해성인터내셔널 등 6개 업체가 참가했다.

판촉전은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조미김, 미역 면, 다시마 면, 냉동 전복, 전복죽, 전복 차우더, 건다시마, 전복 미역국 등을 현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행사에 앞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케이마켓 본사를 방문하여 고장구 K&K 글로벌 트레이딩 회장(4기장보고한상 수상자)과 면담을 통해 각 업체의 입점 제품 및 신메뉴를 소개하며 완도 수산물을 홍보하고 해외 판로 개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완도군 우수 수산물 판촉 행사'가 진행됐다.

판촉 행사 참가 업체는 (주)해성정, 완도세계로수산물, 다시마전복수산물영어조합법인, (유)대한물산, (주)바다명가, 완도다이어업회사법인, (주)해성인터내셔널 등 6개 업체는 제품 홍보 부스 운영과 인플루언서 연계 쿠킹 쇼 및 시연·시식 행사, 라이브 커머스, VIP 초청 만찬회 등으로 이뤄졌다.

라이브 커머스는 당일 배송 서비스와 연계해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쿠킹 쇼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오세영 코라오그룹 회장(5기장보고한상 수상자), 김필성 코트라 비엔티안 무역관장 등이 자리를 빛냈으며, 신우철 군수는 전북과 해조류 등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설명하고 참가 업체와 함께 전북 해초 비법담과 전북 미역국 등을 현지인들에게 선보였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판촉전을 계기로 베트남과 라오스 수산물 시장에서 맛과 영양이 좋은 완도 수산물의 이미지를 굳힐 수 있었고 소비 촉진으로도 이어질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 업체들이 꾸준히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제품 개발과 판촉 행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양영율/기자

한편 완도군과 케이마켓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베트남 케이마켓 완도 K-Food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는 라오스 비엔티안 소재 쿡북 메가마트에서





# 신안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군민 건강지표 크게 향상

### 걷기 실천율, 현재 흡연율 등 2022년 건강조사 결과 발표

신안군이 군민들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질병관리청,新安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하는 국가 승인통계 조사다. 건강조사 결과는 군민의 건강 수준 및 건강 문제 파악, 지역 간 지표 비교 등에 활용된다.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군민의 건강행태 주요 지표인 현재 흡연율,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걷기 실천율, 스트레스 인지율 등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향상됐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진단경험률, 우울감 경험률 등은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해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안군은 1인당 공원면적이 68.87㎡로 전남 평균 대비 2.7배 넓고, 순례자의 섬, 퍼플섬, 맨드라미 정원과 같은 섬마다 특색있는 걷기 좋은 길 등 건강환경 조성으로 지난 6월 전국적 규모의 '퍼플섬 힐링 걷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의 건강수명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을 중심으로 군민의 건강관리에 공들인 노력이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 같으며, 건강조사 결과는 군민 맞춤형 보건사업 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돼 지역사회 건강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구례군,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선정

### 일과 여행을 함께하는 '워킹촌스데이 in 구례'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 구례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 '워킹촌스데이 in 구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 선도 지구 4곳,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 7곳을 선정했다. 구례군은 지역 수요 맞춤형 분야로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워킹촌스데이 in 구례'는 농촌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함으로써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인구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다.

참가자들은 무료로 숙소를 제공받는 대신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는 일손 돕기 활동 등에 참여해야 한다.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

군에서는 2025년까지 촌스데이 하우스를 조성한 후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워킹촌스데이는 고정적인 농촌 일손 지원으로 지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부담 없는 농촌 체험 기회 제공으로 도시민의 구례 정착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 장흥군, 8월 15일까지 벼 병해충 종합방제 실시

### 적기 방제로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

장흥군은 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벼 병해충 종합방제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벼 병해충을 집중예찰한 결과, 긴 장마로 흑점나방, 흰등멸구, 도열병, 문고병 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전했다. 종자소독이 미흡한 일부 포장에서 키다리병, 벼일선충의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멸구류도 육안으로 확인됐다.

병해충은 방제시기를 놓치면 발생 밀도가 급격히 증가된다. 특히, 벼농사 후기 병해충 발생은 쌀 품질과 수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병해충 방제시 종합방제 약제를 농약안전사용기준(PLS)에 맞춰 벼 밀동까지 충분히 살포하여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삭도열병의 경우 이삭이 팬 후에 발생하며, 이삭 목에 침입된 후에는 방제

해도 효과가 없으므로, 출수전에 예방위주 적기방제로 잎집무늬마름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멸구류 등 동시에 방제하면 노력과 방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잦은 강우로 인해 불임, 등숙률 저하로 인한 수량 감소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벼 물관리(물깊게 대기, 물흘러대기), 규산과 칼슘 증시 등 농작물 관리와 함께 이삭거름 적기·적량 시용, 벼 병해충 적기방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흥군 전체 벼 재배능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 구입권을 배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밀 예찰을 통해 신속하게 병해충 발생 상황 분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 '새로운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 특별법 전부개정안 권한이양 유형, 특자도 정부간 권한 관계 및 특례작동 시스템 분석

전라북도는 24일 새로운 시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주대 행정학과 민기 교수를 전문강사로 초청하고,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특례 반영 및 제도 정비 방법 등에 대한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기 교수의 특강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시 고려사항,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 권한 이양 유형, ▲특별자치의 정부 간 권한 관계 구성 및 특례 작동 시스템에 대한 강의와 질문 및 토론이 이어졌다.

민 교수는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시 특별자치도 입법과정 및 고려사항,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우선 순위 및 검토 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권한 이양 유형을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과의 유형별 예시를 통해 비교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특별자치의 정부간 권한 관계 및 특례 작동시스템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검토해야 하는 모형을 제시했으며 특히, 재정사항과 관련해 보통교부세 법정율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현재까지 발굴된 특례가 전북특별법으로 잘 반영돼 전북도민이 기대하는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주역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며,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특례 발굴과 부처 대응에 힘쓴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민 단장은 "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먼저 특별자치도에 대해 깊은 논의와 고민의 시간을 갖고 특별자치도에 맞는 역량을 갖추자"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 전부 개정안 232개 특례를 발굴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부처와 국회에서 적극 활동중에 있으며 도민들의 인지도 향상과 홍보를 위해 14개 시·군 순회 설명회와 함께 앞으로도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해 전문가 학회, 공동 세미나, 직능단체 설명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 진도군, 군민전용 공공앱 서비스 본격 개시

### 스마트폰 터치 하나로 진도군 모든 정보를 내 손안에!

진도군은 군민전용 공공앱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진도군 공공앱은 ▲각종 사업정보 ▲통합교육안내 ▲스마트신분증 ▲마을방송 청취 등 군민 중심의 다양한 종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 서비스이다.

공공앱 서비스는 다양한 정보와 연계된 종합 정보앱인 '보배섬 소식통' 앱과

마을방송 전용 '스마트마을방송'을 앱 제공한다.

구글플레이어와 애플스토어에서 '진도군 공공앱(보배섬 소식통)'과 '스마트마을방송'을 검색해 앱을 다운로드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앱 서비스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군정 정보를 공유하고 언제 어디서나 마을 방송 청취가 가능해 정보 사각지

대를 없애고 군민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오는 8월부터 찾아가는 마을 스마트폰 교육 등을 실시, 공공앱 보급과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진도군 총무과 관계자는 "공공앱 활용법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앱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며 "스마트하고 간편한 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화순군, 노후 경유차 -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신청·접수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독려

화순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오는 8월 1일부터 31까지 추가 접수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와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3종이다. 4등급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접수 진행 중인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된다.

사업에 선정되어 장치 부착을 완료하면 최소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 기간별 지원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 조치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의 경우 화순을 거주자는 군청(별관 2층 환경과)에서, 면 단위 지역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라면서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업별 신청 방법,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준/기자



# 강진군, 취약분야 개선,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가져

### 강진원 군수, "전문성 기반한 적극 소통과 친절 강조"

강진군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재세정 분야 업무담당자들과 '취약분야 개선,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2022년 강진군 종합청렴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취약한 재세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재세정 담당자들은 업무 추진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탁, 금품수수 및 향음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강진원 군수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 추진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청렴도를 대폭 개선해달라"며 "군민의 요구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처리

는 물론, 친절한 서비스로 군민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책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강진군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윤호/기자





# 경북도,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 위한 해법 찾는다

### 민·관·학·연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산사태 전문가 간담회' 가져



경북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민·관·학·연의 산사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시대에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산사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산림기술사, 녹색연합 전문위원, 대학교수(경북대, 안동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산림·환경·도

목·지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사태 피해 원인 및 대응 방안 등에 논의하고 산사태 대응 정책에 조속히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도내 집중호우(7.13~16.)로 인한 산사태 피해 상황 설명(도규명 경북도 산림자원과장) △기후재난 산사태 실태 및 교훈(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 △산사태 취약지 관리방안 발표(송재순 산림기술사) △

산사태 예방의 선제적 대응방안(임재은 산림기술사)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기상이변에 의한 산사태 대응 방안 및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정교철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기후위기는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기후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면밀한 기후위기관감도 분석을 통해 위기상황 예측 시 강제 대피명령을 통해서라도 인명보호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용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에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은 집중호우 시 산지 부근의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김동근 경북도 산림생태보호학과 교수는 "변화된 산림재해환경에 맞는 재해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ICT기반 산사태 조기경보 기술개발과 생활권 차원

의 산림재난예방 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대응 정책을 수립해 선제적인 인명피해 예방 대책 추진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호우'라는 단어가 일상화되고 있고, 상식과 경험 밖의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측이 어려운 기상상황에 대비해 새로운 산사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고, 그 최우선 목표는 인명피해 예방이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 남구, 물놀이축제 8월 9일부터...도심 속 즐거운 여름휴가

### 대형 물놀이존, 물총싸움, 마술공연 등 온 가족이 즐길거리 풍성



부산 남구는 오는 8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 간 용호별빛공원에서 '2023년 남구 물놀이 축제'를 개최한다.

수영장 4개와 워터슬라이드, 페달보트, 챌린저바운스 등이 설치되는 대형 물놀이존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재미와 즐거움을 선물할 예정이다.

물놀이존 외에도 메인무대에서 물총

싸움, 마술공연, 댄스공연 등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 푸드트럭이 마련되어 온 가족이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다.

물놀이존은 8월 1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선착순,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만 이용이 가능하다.

1부(10시~13시)와 2부(14시~17시)로 나눠서 운영하며 1일 1회 입장가능하다. 안전을 위해 어린이 동시 입장객은 총 800명으로 제한된다. 입장객은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며 메인무대와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주민 편의를 위하여 임시주차장(더뷰 내 주차장, 분포 고 옆 유희부지) 2곳도 운영한다.

오민택 남구청장은 "무더운 여름, 주민들에게 오아시스처럼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물놀이 축제 개막식은 8월 9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송충진/기자

# 대구시, 나라 사랑 첫걸음 태극기, 올바른 관리 체계 마련

## 국기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 마련

대구시의회 이성오의원(기획행정위원회, 수성구3)은 제302회 임시회에 국기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자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대구광역시 국기제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삼일절 당일 세종시의 모 아파트에서 한 목사가 일장기를 게양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일로 전국적으로 나라 사랑의 소중함과 국기 게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는 됐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아

파트에서는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국기 게양대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태극기 게양을 장려하는 문화도 사라져가는 실정이다.

또한, 누구나 오염·훼손된 태극기를 함부로 처리하면 안되는 줄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폐기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관련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이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월 1회 이상 국기를 점검토록 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 분청, 직속기

관 등의 민원실에 국기수거함을 설치해 국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토록 하는 등 올바른 국기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해 국기 게양을 장려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오 의원은 "태극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신이 깃들어 있지만 연젠가부터 우리 곁에 태극기 게양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이번에 올바른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해 다시금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심리검사 및 셀프힐링 프로그램 운영

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월 20일부터 8월 30까지 9세부터 24세까지의 초, 중, 고, 대학생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프로그램 '심리검사 및 셀프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리검사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 및 성격 이해를 토대로 참고할 수 있는 올바른 학습방법과 학습방향의 길잡이를 알려줄 수 있으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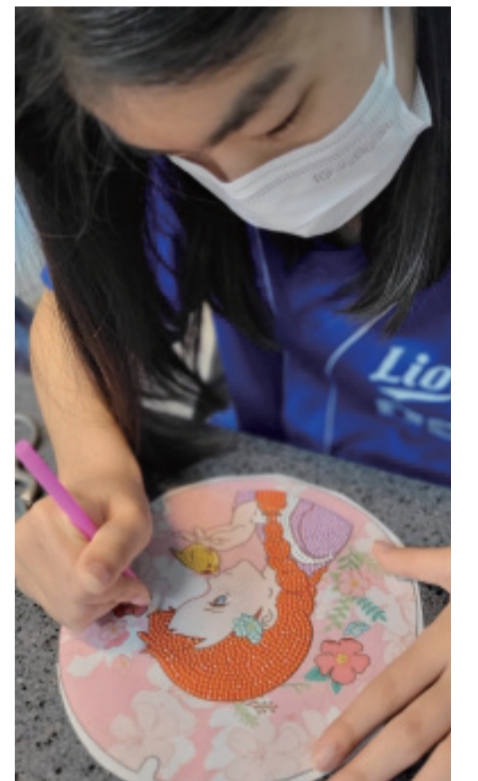
'셀프힐링 프로그램'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안정감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점심시간(12:00~13:00)과 주말은 운영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방학 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내서 정서적 안정감 있는 건강

한 청소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청송사랑화폐' 9월 구매 한도 1인당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

청송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청송사랑화폐'의 1인당 월(月) 구매 한도를 오는 8월 1일(화)부터 7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23년도 총 700억원 규모로 발행 중인 청

송사랑화폐의 1인당 월별 구매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군은 홍보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변경된 구매

한도를 적용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의 월 1인당 구매한도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청송사랑화폐 이용자 분들에게 변경된 정부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 들어서

해수부 공모에서 울산, 창원 등과 치열한 경쟁 끝에 거둔 값진 성과 2027년까지 490억 투자, 나정고운모래해변 일원에 '신라오션킹덤' 新해양관광 르네상스 조성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각인시켰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

경주시는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주관 나정고운모래해변 일원에 '2023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은 전국을 수도권과 서해안권, 다도해권, 동해안권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경주시를 비롯해 울산 동구, 충남 보령시, 경남 창원시에서 신청하여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사업 타당성, 현장 실사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특히 경주시는 대면 및 현장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시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신라오션킹덤' 조성사업은 ▲해양레저 지원센터 ▲사계절 실내 레저체험센터 ▲용을 모티브로 한 해양레저 체험길인 용오름길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바다 해수풀장인 고라섬풀장 ▲바다 속에서 조각 작품을 즐길 수 있는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수상레저 특화 체험장인 나정 수상 레저 체험장 ▲해변 휴식공간인 만파식적 공

원 등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90억을 투자하여 2027년에 완공될 대형 국책 해양레저 사업이다.

주낙영 시장은 본 사업의 유치를 위해 직접 기획부터 대면평가 발표자로 나서는 등 선정되기 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했으며, 지역 출신의 김석기 국회의원과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예산편성을 주도하는 등 경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감포지역을 포함하여 문무대왕면, 양남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풍부한 관광 인프라와 역사 문화자원, 우수한 접근성 등 경북을 넘어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감포 나정에서 문무대왕릉에 이르는 일대에는 이번 공모에 확정된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 뿐만 아니라, 이미 '신부해양역사공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 등이 조성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해양교육, 해양역사 체험, 해양레저관광 등으로 이어지는 해

양 에듀테인먼트(교육, 오락, 관광) 벨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황리단길 등 시내권과 불국사권, 보문관광단지권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거 동해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주에도 바다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확실하게 각인시켰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아울러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되기 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김석기 국회의원의 열정과 결의를 모아준 어민들을 비롯한 동해안 주민들께 깊이 감사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태용/기자





### 영덕군, 근거중심 방역체계 구축해 과학 방역 본격화

#### 모기 박테이터 활용, 일일 모기 발생 감시장비(DMS) 설치



영덕군보건소는 작년 말 경상북도의 시범사업인 근거중심 매개체 방제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6,500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관내 10개소에 '일일 모기 발생 감시장비(DMS)'를 설치하고 8월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DMS는 이산화탄소로 모기를 유인해 잡은 후 그 수량을 디지털로 데이터화해 무선통신으로 지정된 서버로 전송해 실시간으로 모기 밀도를 감시하는 장치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방역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여름철 모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희 영덕군보건소장은 "기존 방역체계를 DMS의 데이터를 활용한 근거중심 방제로 방역체계를 전환함으로써 선택적 집중 방역이 가능해져 무분별한 방역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 "모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착공 초읽기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9월 중 착공, 2025년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경북도는 지난 19일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데이터센터 시설설계 완료와 이사회 통과에 따라 착공 일정과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는 경북도와 KT, kt cloud, 예천군, 경상

북도개발공사, 클라우드 서비스 유지관리 업체인 피플데이터와 데이터센터 시공을 맡은 CJ 대한통운이 참여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핵심자원인 네트워크, 하드웨어, 데이터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

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예천 호명면 일대에 구축될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대지면적 7,970m<sup>2</sup>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올해 9월 착공을 거쳐 202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경북도는 도 및 시군 150개 행정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회의는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과 kt cloud의 발 도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회의는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과 kt cloud의 발 도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회의는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과 kt cloud의 발 도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성대 KT 경북법인단장은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에 참여할 인력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 제공 등을 건의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지원정책' 추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경북이 데이터센터를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약화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발전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KT, kt cloud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지역 데이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도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울진해경, 관할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대상 인명구조훈련 실시

####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영덕 수상인명구조요원 교육훈련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울진해양경찰구조대에서 영덕군 소속 수상인명구조요원 56명을 대상으로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책임감을 높여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진해양경찰구조대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만큼 민간 수상인명구조요원들이 안전사고에 적극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이론교육 및 실습, 기본응급처치법 등 구급요령, 심폐소생술, AED사용법, 해수욕장적응 훈련(바다수영 등), 인명구조 훈련(장비이용 구조술 등)으로 진행됐다.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의성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편에 따라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지침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24개소의 가맹점에 등록 제한(취소) 예고를 통지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8월 17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인 수당, 아동 수당 등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이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의성사랑카드 사용 및 결제를 해왔던 카드 사용처에 대해서도 8월 1일부터는 가맹점 등록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계속해서 의성사랑카드 결제를 유지하거나, 신규로 의성사랑카드를 통한 결제를 원하는 업소에서는 의성사랑카드 고객센터 또는 의성군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 등록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행정안전부의

변경된 지침 적용으로 상품권 사용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인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군민들께서도 개편된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상품권 사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일제정비 실시

## 예천군 폭우피해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으세요' 손편지에 큰 힘 얻어

#### 부산 금빛초등학교 6학년 4반 학생들이 보내온 금빛보다 빛나는 위로

예천군에는 지난 21일 '금빛초등학교'에서 보내는 노란 봉투가 배달됐다.

이 노란봉투에는 부산 금빛초등학교 6학년 4반 학생 22명이 피해 주민과 복구를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소방 경찰 군인 공무원 등을 위로하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기를 응원하며 정성스럽게 쓴 22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학생들이 쓴 편지 한 장 한 장에는 "최근 폭우가 쏟아진 예천군의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편지를 씁니다. -중략- 걱정마요. 힘내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으

세요.", "저희가 어떻게 위로해드릴 순 없지만 편지라도 써서 이렇게 마음 전할게요.", "이 편지가 꼭 이재민분들과 폭우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소방관, 경찰관, 군인님들도 힘내세요. 복귀 작업에 주시는 많은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등 진심을 담은 격조와 위로의 글들로 가득했다.

금빛초등학교 6학년 4반 담임선생님은 "국어수업 시간 중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하면서, 학생들과 뜻을 모아 이번에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군민을 위로하고 복구

지원에 힘쓰는 분들을 응원하고 싶어 편지를 쓰게 됐다."며 "아이들이 쓴 글이 군민들이 힘든 상황에 이겨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현자 홍보소통담당관은 "받은 편지마다 아이들의 따뜻한 격조와 위로의 말들로 가득해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편지 속 바람처럼 군민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예천군민을 대신해서 금빛초등학교 6학년4반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칠곡군,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

칠곡군은 지난 20일 칠곡군청 강당에서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10기 대표.실무협의체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공동위원장인 김재욱 군수를 포함해 사회보장 관련 민간 기관·시설·단체의 대표, 학계 교수 등 총 47명이 새로 위촉됐으며, 민간 공동위원장에 최충원 칠곡소방서 소방행정장문단 수석부단장이 호선으로 선출됐다.

이번에 위촉된 47명의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평가, 지역사회보장급여 제공 등에 관한 심의·자문,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첫출발을 함께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관협력의 중심점 역할을 담당해 주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광삼/기자

## 봉화군, 제7공병여단 소속 장병들, 대민 지원 중 개울에 잠긴 주민 구조해 생명 살려

육군 제7공병여단 소속 김재용 중사의 2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봉화군 물야면 복지리 일대에서 대민 지원 중 바위에서 넘어져 개울에 잠긴 한 민간인(남, 70대)을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중사 등 장병들은 지난 21일 오전 11시40분경 개울을 건너다가 미끄러져 얼굴이 개울에 잠긴 채 일어설 수 없고 있는 한 마을 주민을 발견했다.

이에 신속하게 뛰어가서 구조해 부대에서 배운 응급조치로 의식과 호흡, 골절여부 확인 후 119에 신고하고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했다. 이후 이마(3cm)와 코 등 찢어진 부위를 지혈하고 봉화군 119센터로 주민을 인계했다.

이웃집 주민은 "군 장병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의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며 "군 장병들에게 감사하고 국가 안보에 믿음이 간다."라고 말했다. 팀장 김재용 중사는 "재난복구 지원

중 또 다른 소중한 인명을 구해 보람을 느끼며, 계속되는 재난복구로 지친 국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현장형 복구, 선진국형 이재민대책 마련할 것"

### 과거처럼 집단으로 모여 있는 형태 벗어나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도청 재해대책 실국장회의를 통해 "이제는 이재민들이 과거처럼 집단으로 모여 있는 형태를 벗어나 선진국형 이재민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직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형 복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이제 텐트를 이용한 불편한 이재민 대책을 세우기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재민들을 호텔이나, 호텔이 없는 지역에서는 여관이나 모텔로 모시는 등 선진국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며 "그 비용은 도에서

부담하겠다. 시군에서는 비용 걱정 말고 진행하라"고 도 간부들과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지시했다.

또 "예천·영주·봉화·문경 출신의 도청 간부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서 시군과 함께 이분들을 설득해 호텔이나 모텔, 여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작년 3월 울진 산불 때도 체육관에 모여 있던 분들(104명)을 덕구온천관광호텔로 모신바 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다"며 "그런데, 한 분 두 분 가기 시작하니까 다 가시더라. 나중에는 '이렇게 좋은데,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일본 등의 방재선진국들은 다양한 재난상황을 대비해 체육관,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 이외에도 이동식주택,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의 민간시설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도 언급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장중심의 복구체

제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사는 "탁상행정식 복구는 현장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국장과 과장급 직원의 현장 책임관을 운영해 매일 현장 이야기를 수집하고 피해복구에 즉각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또 "타 시군과 유관기관 및 도청 직원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일손을 보태서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북도는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과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가장 피해가 큰 예천, 영주, 봉화, 문경 등의 시군과 함께 이재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호텔과 모텔, 연수원 등의 시설 확보에 나섰다.

윤근수/기자



# 청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어르신과 행복한 점심 나누기

청송군은 청송읍 이웃사랑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지난 7월 20일 월막1리 어르신 100여 명과 점심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청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민·관 협력기구로, 주민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반석이앤씨 농촌활성화센터 봉사단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원 받은 상금으로 청송읍내 식당(사과밭에 돈돈)에 도움을 받아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정성이 가득한 식사와 음료 등을 대

접해 드려 훈훈한 감동을 더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매일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여럿이 같이 먹으니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어르신과 함께해 주신 청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정성 가득한 식사를 준비해 주신 사과밭에돈돈 천정숙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청송읍 복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울릉군 독도의 최초 주민 故최종덕이 독도에서 사용했던 생활용품, 독도박물관에 기탁

독도의 최초 주민이었던 故최종덕의 자녀인 최은채씨는 2023년 7월 20일 생전 자신의 아버지가 독도에서 생활하면서 실제로 사용했던 유물 4점을 독도 박물관에 기탁했다.

故최종덕은 1963년 독도에 최초로 입어를 했으며, 1965년 울릉군 도동수협으로부터 독도 단독 공동어장에 대한 독점적 채취권을 획득한 이후 본격적으로 독도에서 정주하며 독도 어장 개발에 기여한 인물이다. 특히 1981년 10월 14일 주민등록을 독도로 이전하여 최초의 독도 주민이 되어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기여한 울릉도 주민으로 알려져 있다.

최은채씨가 독도박물관에 기탁한 유물은 故최종덕씨가 독도에서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울릉도에서 가져가 사용했던 함, 동도와 서도 간 전화가 개통됐을 당시 사용된 서도 최초의 자석식 전화기, 최종덕과 그가 고용한 제주

해녀의 육성이 녹음된 오픈릴 테이프 및 녹음기, 故최종덕이 거주하던 서도의 암반에 부착되어 있던 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동판 등이다.

독도박물관은 기탁해준 유물의 대한 보충처리를 시행 한 이후 오는 2023년 8월 8일 제4회 섬의 날을 기념하여 독도박물관 상설 3전시실에서 해당 유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故최종덕의 육성이 녹음된 오픈릴 테이프의 내용을 디지털로 복원한 이후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강화에 기여했던 故최종덕씨의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기탁해 주신 최은채씨의 결정에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울릉군의 기증 및 기탁 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강제/기자



# 영천 주소갖기군부대 유치 캠페인 펼쳐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소장 양광환)는 지난 22일 생활체육관에서 개최된 69동우회 한마음 단합대회 행사장을 찾아 영천 주소 갖기 및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10명의 직원들은 69동우회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 영천을 알리고, 영천시의 다양한 전·출산 지원 혜택을 안내하며 고향인 영천 주소 갖기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로부터 호국·국방도시이며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의 지리적 강점을 가

지고 군작전상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해낸 영천이 대구 군부대 이전의 최적지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관외에 거주하는 69동우회 회원들 100여 명에게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광환 체육시설사업소장은 "호우와 폭염에도 69동우회 회원들이 고향을 방문해 영천 주소 갖기와 대구 군부대 유치 캠페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인구와 대구 군부대 유치는 영천 발전의 희망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반식/기자



# 반갑다! 대구 '대구국제대학생캠프' 4년 만에 대면으로 만난다

###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2023 대구국제대학생캠프' 개최

대구광역시시는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5박 6일간 '2023 대구국제대학생캠프'를 대면으로 진행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대구국제대학생캠프'는 해외와 지역 대학생 간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고 해외의 친(親)대구인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다. 2020년은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취소됐으며, 2021년과 2022년은 지속되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된 바 있으며, 올해 드디어 4년 만에 다시 대면행사로 전환해 열리게 됐다.

대구시의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 중 태국 방콕시가 2014년부터, 중국 낭보시와 대만 가오슝시가 2019년부터 본 캠프의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해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의 효과는 해외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 23일 대구에 도착한 해외 대학생 참가자들은 2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프로그램은 한국어 학습, K-Pop 댄스, K-Food, K-Beauty 체험 등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문화 체험 소재들을 활용해 쉽고 재미있게 한국과 대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BTS 뷔 벽화거리, 서문시장, 이월드 등 대학생들의 흥미를 북돋을 수 있게 대구의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4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캠프이다 보니 특별히 새로운 두 가지 프로그램도 시도한다. 첫 번째로 참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어 'K-Pop'으로 인한 한국 호감도 변화, '세계 청년들이 원하는 공학의 모습'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고 '대구경북통합심공향'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두 번째로 대구상성라이온스파크를 찾아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K-Sports 문화도 접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안중근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4년 만에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 대학생들



윤근수/기자

# 부산시, 노인일자리 이바구 들으러 가다!

### 5~6월, 노인일자리 사업 중 취약계층 대상 희소성, 전문성 있는 사업단 선정해 방문 인터뷰 실시



### 노인일자리 이바구 들으러 간 Day 민주공원 도슨트

서구시니어클럽 | 숲 해설사 김윤리 선생님 | 사업 담당 최정임

부산시는 노인세대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이바구 들으러 간 데이(Day)'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이바구 들으러 간 데이(Day)'는 가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노인일자리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시는 지난 5~6월, 자체 선정된 특색

있고 전문성 있는 6개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장을 찾아 어르신과 사업 담당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올해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940개 노인일자리 사업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전문성과 희소성을 띤 성격의 사업 6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민주공원 도슨트(서구) ▲다문화 가족지원단(남구) ▲노하우 9060(부산진구) ▲소비자 지킴이(해운대) ▲아이사랑 9060(부산진구) ▲시니어 미디어제작단(남구)이다.

지난 5~6월, 2개월간 6개 사업의 현장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주공원 숲 체험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숲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인터넷 쇼핑물의 부당광고를 예리하게 찾아내거나, 다문화가정에 친정엄마이자 할머니로 활약하거나, 장애 실버버튼 유튜브를 바라보는 각양각색의 어르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시는 인터뷰 내용 중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연이나 가슴 뭉클한 일화를 추려 카드 뉴스와 인터뷰 대본으로 제작해 노인일자리 사업 홍보자료로 배포할 방침이다.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를 자체 제작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부산소식에 매주 월요일마다 한 편씩 게재하고 있다.

6편까지 제작한 자료는 시 노인정책 및 노인일자리 사업홍보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안경은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노인일자리 이바구 들으러 간 데이(Day)' 추진과 홍보자료 배포가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노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 세대와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는 노인일자리 확대 발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對)시민 인지도 강화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현재까지 진행한 인터뷰 이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종진/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마종료시까지 재해대책 최우선”

### 집중호우 침수 피해 현장·하천 범람 우려지역 잇따라 점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4일 오전 호우 대비 재난대책 보고회를 열어 장마가 끝날 때까지 재해대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하고, 목포 침수 피해지와 함평 하천 범람 우려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상황을 살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이틀간 전남 전역에 평균 83.5mm, 지역에 따라 무안 215.3mm, 함평 193.3mm, 목포 189.7mm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다. 특히 이날 새벽

서부권역에서는 시간당 6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25일 오전까지 주로 밤과 새벽 사이에 50~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시간당 30mm 내외의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기습적인 호우로 지하차차장 침수 2건, 주택침수 37건, 상가 침수 10동, 도로 침수 및 범면유실 7개소, 농경지 침수 817ha 등 크고 작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집중호우를 지켜보면서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음을 절감했다”며 “돌발성-게릴라성 강우는 앞으로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번 호우로 도심지에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이물질 제거와 지하차차도 차단시설 작동 여부 점검 등 도심 침수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산사태가 기존 위험지역 뿐만 아니라 비관리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태양광 설치 산지 등 인위적 개발지 재점검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전남은 그동안 강우량이 분산돼 큰 피해는 없었으나 23일 저녁처럼 예상을 벗어난 돌발성 호우가 일어날 수 있으니, 재난상황 대처를 최우선으로 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경찰청, 소방본부,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이 지금까지 협조를 잘 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재난사고를 신속히 예방하도록 협

업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대책회의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침수피해를 입은 목포 석현동 삼거리를 방문해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피해 지역은 임성천과 삼향천 중상류 구간의 제방고 높이가 낮아 집중호우 시 제방 월류로 도심지 침수가 잦은 곳이다.

2020년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돼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2월부터 427억 원을 들여 관로 개선 소하천 정비 등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대책회의를 마친 김영록 지사는 곧바로 함평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학교면 원고막교와 주민 대피현장인 신광면 연천마을회관을 잇따라 방문해 호우 피해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대피한 주민들의 안전을 살폈다.

원고막교는 고막원천 수위가 이날 오전 9시 5.9m까지 상승하며 홍수고 6.2m에 근접한 상황에 다다랐다. 이에 고막원천 범람에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 11명을 긴급히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키고 배수펌프 2대를 작동시키며 수위를 조절했다. 그 결과 오전 11시 현재 5.4m로 안정적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박중배/기자

# 서울시, 온라인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 중점 수사... 상반기,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12명 적발·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요 광고 매체로 이용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올해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 직거래사이트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전세사기(강통전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이며, 특히, 분양대행사,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신속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에 대한 ‘전세매물 안내’, ‘전세대출 이자 지원’, ‘분양 OK, 전세 OK’ 등 임대차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한다.

또한, 무자격자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개발’ 등 명칭을 사용하여 신속 빌라의 부동산 매매, 중개 등 의뢰를 받고 계약에 관한 설명이나 거래대금 조율 등 실질적인 중개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최근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 자칭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부동산컨설팅’회사를 운영하면서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연계해 수익을 챙기는 등의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이 중개업소들은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 상반기 강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5명 등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개업자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피해자를 가져 전세매물로 유인한 후 ‘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으로 현혹하여, 신속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 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 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조회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전세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동산 불법 광고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윤병태 나주시장 “23~24일 장마 중대 고비... 사전 점검, 대응 총력” 지시

### 재해·인명피해 우려 지역 6개 면·동 16가구 사전대피 조치

윤병태 전라남도 나주시장은 23일 호우 대처 상황판단 회의를 주재하고 홍수·산사태 등 재해·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 사전대피를 지시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23일 14시 기준 20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이날 밤부터 익일(24일) 새벽~정오까지 110mm가량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아울러 150mm이상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영산강과 강 지류인 남평을 지석천에 홍수 경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측된다.

나주시는 다시 회진·영산교·나주대교·남평교 하천별 저점 수위, 강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4곳 댐(나주·광주·담양·장성댐) 수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이날 재난 대응 전체 부서, 읍·면·동장을 긴급 소집해 경

찰·소방서·한국전력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사전 현장 점검과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홍수·산사태 등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재해(인명) 피해 우려 지역 주민 사전대피 조치를 강조했다.

윤 시장은 “오늘 밤부터 익일 새벽이 이번 장마의 중대 고비로 영산강 홍수 경보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되는 비로 급경사지 지반이 대단히 약해져 있어 산사태, 급경사지 인근 주민들을 강제로라도 사전 대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일 자정까지 이창동, 경현동, 세지·봉황·왕곡·반남면 등 6개 면·동 산사태·급경사지·축대붕괴 위험지역 16가구(23명)에 대한 사전대피를 각 읍·면·동장에게 지시했다.

이어 “영산강, 지석천 홍수 경보 시에는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읍·면·동 책임자들이 대피 명령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시장은 “우리 시 관내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시가 책임진다는 의식을 갖고 재난 상황에 임해야 한다”며 “안전 문턱만큼은 소관 부서 구분 없이 인정한 사람이 우선 조치하고 보고는 조치가 끝난 이후에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뿐만 아니라 현장 점검을 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하천가, 저수지 등 점검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간선버스 광주 구간 지하차도 침수 시 선제적인 우회 운행,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저지대 농로 침수

로 인한 차량 전복 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병태 시장은 “항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다”며 “쓸데없이 고생했다는 말을 듣더라도 모두가 안전한 생각을 버리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호우 대처 상황판단 회의 이후에 남평을 지석천 솔밭유원지 지석교를 방문해 하천 수위, 유속, 배수시설과 남평을 도심에 흐르는 실개천, 상습침수구역 현장을 점검했다.

윤 시장은 “지석천, 만봉천 등 영산강 지류는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쉽게 불어난다”며 “영산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통해 강 지류·지천 준설사업을 적극 건의하고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sub>2</sub>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 · Feel · 必

##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 “안전이 최우선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폭우 대비 위험지역 현장점검

### 팔봉산 유원지 방문... 여름철 대비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22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주말 폭우 예보에 대비하여 인명피해 위험지역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진태 지사는 하천변에 조성된 홍천군 둔치 주차장을 방문하여 차량 출입 차단 작동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홍천군 둔치주차장은 지난해 6월 23일 상류 두촌면 지역에 167mm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상류 쪽 수위 센서 등 사전예측 가능한 시설이 없어 차량 30여 대가 침수된 곳이었다.

이후 홍천군은 정부에 재난안전특교세를 신청해서 받았고, 최근 둔치주차장에 수위센서, 침수차단경보기, 차량

소유자 대상 문자발송 시스템 등을 설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도내 침수 우려 둔치주차장 14개소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침수위험 자동알림시스템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차량침수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에 따른 신속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김진태 지사는 홍천을 진리, 신장대리 등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역의 대비 상황을 브리핑 받았다.

홍천군은 내년도 풍수에 생활권 정비사업 신규지구로 신청한 만큼, 도에서도 홍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비사업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4년도 풍수에 생활권 정비사업은 총액 424억 원, 양양 460억 원 2개 지구를 신청하여, 지난 4월에 발표평가 및 현지실사를 거쳐 9월 최종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김진태 지사는 여름철 계곡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팔봉산 유원지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와 인명피해 대책을 살피고, 인명구조함 등 각종 시설을 점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물놀이 관리지역(계곡, 하천)은 16개 시·군 총 441개소로, 물놀이 관리기간(6.1.~8.31.) 동안 총 585명의 안전관리요원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안전 점검을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22일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모든 사업소와 18개 시·군에 주말 집중호우에 대비한 김진태 도지사 특별지시를 전달했다.

단체장을 비롯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산사태, 침수 등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현장점검 결과, 산사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당 주민들에게 즉시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김진태 지사는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모든 공무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랜싱시 청소년 캠프 언제든 환영”

### 훗서 랜싱시 자매도시위원장 방문...내년 교류캠프 재개 시사

박경귀 아산시장은 22일 “자매결연 도시인 랜싱시(市)와 코로나19로 멈췄던 교육 교류를 재개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장실에서 랜싱시 자매도시위원회(LRSC) 크리스토퍼 훗서(Christopher Hodshire) 위원장과 만나 두 도시의 교류 협력을 논의했다.

박 시장과 훗서 위원장은 이날 방문으로 두 도시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경제·교육·문화·예술 등의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 증진에 뜻을 모았다.

특히 박 시장은 “올해는 랜싱시 학생들이 일정 등의 문제로 ‘아산시 청소년 국제교류캠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랜싱시 학생들의 아산 방문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내년에 랜싱시가 현지에서 캠프를 주관한다면, 아산의 고등학생 20~25명을 모집해 함께 방문하고 싶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또 “해외 자매결연 도시들과 문화·예술 분야 교류를 강화하려 한다. 올해 가을에는 최초로 자매결연도

시의 민족무용단을 초청한 ‘국제민족무용축제’ 개최를 추진 중이다. 가능하다면 내년엔 랜싱시도 참가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오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중국, 말레이시아, 몽골 등 해외 자매결연 도시 국가의 전통공연단을 초청한 ‘아트밸리 제1회 국제민족무용축제’를 열겠다는 게 박 시장의 구상이다.

이에 훗서 위원장은 “랜싱시 학생들이 ‘아산시 청소년 국제교류캠프’에 참가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다. 추후 교류캠프 개최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이전에는 아산의 문화예술 단체가 랜싱시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아산시가 국제민족무용축제를 개최한다면, 충분히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예술에 집중하는 박 시장의 방향성을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랜싱시는 지난 2006년 우호 교류 관계를 체결한 이후 학교 간 청소년 교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원호/기자

# 충남도, 보령 원산도에 해양레저센터 생긴다

### 도, 해수부 주관 공모 최종 선정...원산도 일원에 총400억 투입

충남도는 보령시 원산도 해수욕장 일원에 2026년까지 ‘원산도 해양레저센터’를 건립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 주관 ‘2023 해양레저관광 거점 국가 공모’에 보령시가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400억 원(국비 200억)을 확보했다.

민선 8기 공약인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의 핵심사업인 원산도 해양레저센터는 사계절 동력·무동력 수상레저 활동과 해양안전교육에 특화된 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실내에는 엔드리스풀, 파도풀, 일반풀, 아쿠아클라이밍 등 지상 2층 규모의 해양레저시설(원산도 오션 플래닛)을 갖춘다.

실외에는 피어(부두) 계류시설, 유닛서프풀(인공서핑) 등 해양체험시설(원산도 오션 프런트)과 탐방로 및 오토캠핑장 등 육상체험시설(원산도 오션 트레일)을 조성한다.

도는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해수부로부터 국비를 받는 즉시 보

령시에 교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앞서 도는 그동안 주민간담회, 공모 추진계획 수립 후 과거 공모사업 추진 동향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 해수부 직접 대응 등 가능한 행정력을 전부 집중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과제 9건(공공 7건, 민간 2건) 중 이번 해양레저센터를 비롯해 지난 1월 삼시도 아트 아일랜드 조성, 3월 원산도 갯벌생태계 복원 등 3건이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도와 보령시는 앞으로 원산도 복합 마리나항과 선셋 아일랜드 바다역 건설 사업이 해수부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부터 면밀히 준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태환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레저센터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원산도를 중심으로 한 5개 섬에 공공사업과 대규모 민간사업을 연계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황금빛 노을이 뜨는 노을경계권의 허브, 해양레저와 생태, 치유와 문화예술이 모두가능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 천안시티투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과 새로운 코스 개선

### 독립기념관 방문 및 빵체험, 숲체험 등으로 구성된 코스 시범 운영

천안시가 새로운 천안시티투어 코스를 개발 중인 가운데 더 많은 엠지(MZ) 세대가 시티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일 천안시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코스를 시범 운영했다.

새로운 시티투어 코스는 모든 연령층의 두박이들이 지역여행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체험과 맛집 등으로 구성된 테마 코스이다.

코스는 유관순 열사 사적지를 기점으로 ‘빵의 도시 천안’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빵 만들기 체험을 제공하고, K-컬처 박물관이 개최될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뒤 천안타운홀에서 커피 등을 즐기면서 천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반영할 예정이며, 새로운 코스에 대한 홍보 영상도 촬영해 시티투어를 더욱 널리 알릴 계획이다.

2023년 천안시티투어는 올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6월까지 모두 80회 운행하며 1,798명을 태우고 천안의 명소와 관광지를 누볐다.

시 관계자는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천안명소를 체험하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구성된 새로운 시티투어 코스에 많은 여행객이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천안시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여행자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원주시 청소년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합니다

### 오늘 25일, 오후 5시 무실동 롯데시네마 일원에서 캠페인 실시



원주시가 ‘청소년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2일 1388지원단원, 청소년안전망 등

여러 팀들과 함께 복원중학교와 태장중학교를 방문하여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예방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청소년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체크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거리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오는 25일에는 무실동 롯데시네마 근처에서 오후 5시부터 청소년쉼터 아웃리치, 여름휴가철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성범죄자알림e사이트 홍보 캠페인을 연함하여 실시한다.

원주경찰서,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주YMCA, 한국청소년육성위원회), 원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원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8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이탈행동을 계도하고 성범죄자알림e사이트 홍보하는 등의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송명순 여성가족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에게 건전한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택시, 9월까지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택시는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노후 건물 번호판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0년 처음 설치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은 장기간 햇빛에 노출돼 탈색 또는 훼손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건물번호판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주소정보시설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자연 훼손된 지역의 건물번호판 1,010개소를 우선 무상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건물번호판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새 건물번호판에는 QR코드가 도입되어 지도상 현재 위치와 도로명주소를 표시해 시민들이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신속한 신고와 사고대처 효과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관계자는 “건물번호판을 정비함에 따라 도시미관의 개선과 선명한 건물번호판으로 시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 강원강릉시·충남보령시·부산해운대구 자매결연체결, 대한민국 3대 해수욕장 도시의 만남, 더 큰 도약!

강릉시는 대한민국 3대 해수욕장 소재 도시인 충남 보령시, 부산 해운대구와 오는 22일(토)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진행했다.

강릉시와 보령시, 해운대구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 각각 경포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등 전국 최대의 해수욕장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은 동해안 최대 해변으로 해수욕이 백사장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해돋이와 달맞이의 아름다운 장관으로 유명하고 석호인 경포호가 인접해 있는 전국 최고 관광명소이다.

충남 보령시의 대천해수욕장은 서해안 최대 해변으로 동양 유일의 파각분백사장이며, 경사가 완만하고 일정한 해수욕을 즐기기에 천혜의 장소로 손꼽힌다.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해운대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가 1.5km, 폭 70~90m로 매년 수백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방문하는 남해안 최대 해수

욕장이다.

이번 협약식은 3개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상생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교류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됐으며 제 26회 보령머드축제 개막일에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해수욕장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우수시책, 민관협력 등 지속적인 상호 정보 교류에 나서고, 주요 공통 관심 사항인 해수욕장 개발 및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3대 해수욕장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상생발전 을 도모한다.

아울러 경제·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지역특산물 홍보 및 지역축제, 민간 단체 공연 등 문화체험 교류를 추진하고, 안전·행정·인적교류에서 각종 재난·재해 시 공동대처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합의서 서명식 이후 보령머드테마파크 머드관 앞에서 자매결연으로 맺어진 세 도시의 우정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길 바라는 의미를 담아 각 3개 도시의 상징물인 시·구목 소나무(반송)를

식재하는 기념식수 행사를 진행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강릉시와 보령시, 해운대구는 산, 바다를 지닌 아름다운 관광·휴양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세 도시가

함께 해수욕장 관리 및 경제, 관광,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서울시, 홍콩에서 유망기업 유치 로드쇼 성황리에 마쳐

7.19(수), 홍콩(St. Regis 호텔)에서 ‘서울 포워드(Seoul Forward)’ 개최, 총 70여개사 참석



세하게 소개했다.

서울 진출 세미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전문기관인 법무법인 세종과 행정 회계법인에서 해외 법인의 국내 진출 절차와 한국의 세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여 서울 진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은 19일(수), 홍콩 현지기업 중 서울 진출의사가 있는 Finex(자금조달 서비스 및 컨설팅 제공), Slowmist(블록체인 보안서비스 제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두 기업이 서울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마켓리서치는 물론 법인설립, 노무·법률 등 경영지원, 사무실 임차 등 서울 진출 전 과정을 올인원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울시가 홍콩 소재 글로벌 및 현지기업의 서울 유치를 위한 홍콩 투자유치 로드쇼를 성황리에 마쳤다.

서울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은 홍콩의 대표적인 무역·투자 촉진기관인 ‘홍콩무역발전국(HKTDC)’과 손잡고, 서울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울 포워드(Seoul Forward-Your Next Business Destination)’를 7월 19일 홍콩(St. Regis 호텔)에서 개최했다.

시는 이번 홍콩 로드쇼를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이전 수요를 확인하고, 홍콩 현지기업의 서울 진출 의사를 파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진출 의사가 실제 투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숨은 니즈를 사전 파악하여 법률·회계전문가와 기업 간 1:1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다. 특히, 홍콩의 핀테크 기업인 프리베 테크놀로지(Prive technologies)와 같이 이미 서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서울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이동원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교수)에 대해 경쟁도시와 비즈니스 환경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해외 기업이 서울 진출로 인한 수익 창출효과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에 진출(투자)할 경우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와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자

이 외에도, 로드쇼에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인 Circledna를 운영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사인 Prenetics Limited, 애니메이션 및 브랜드 라이선스 배분을 전문으로 하는 홍콩증권거래소 상장사인 Medialink group 등 70여 개의 기업이 참석했다.

2022년 2월에 출범한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은 해외 유망기업과 투자자본을 서울로 집중하여 유치하는 전담 기구로, 2024년 9월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홍콩을 시작으로 아시아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적인 현지 투자유치에 나선다. 현지 유망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서울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싱가포르에서 현지 투자유치 로드쇼를 진행하며 서울의 투자환경을 알리고 진출의사가 있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산업정책관은 “서울의 매력과 투자환경, 인센티브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를 서울로 유치하는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서울시가 글로벌 기업들이 서울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학생 공학주간 강연회 개최

이종호 장관, “과학자를 꿈꾸는 여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학생 공학주간 강연회(걸스 엔지니어링 토크, Girls'Engineering Talk)’를 7월 21일 14시에 서울 슈피겐홀(삼성동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학생 공학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본 행사는 여학생의 공학 분야 흥미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강연회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 여학생들은 미래를 이끌 신기술에 대해 알게 됐고, 여성과학기술인 커리어 성장 이야기와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미래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양분을 얻었다.

올해는 “잘파세대를 위한 미래기술 - 10년 후 우리가 만날 세상”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기초과학, 우주공학 분야에 대한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과 여성과학기술인 4인의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자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명희 신한금융그룹 부사장, 오유란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

교수, 이예령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임석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 나선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과학기술 인재,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많은 여학생들이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하여 미래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인구감소 시대에 과학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많은 여학생이 이공계 인재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신기술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소개하며 과학기술이 열여덟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이어서 진행된 테마토크(Talk)에서는 과학기술 유망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4인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 수 있었다.

김명희 신한금융그룹 부사장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삶의 변화와 미래 인

재가 가져야 할 역량에 대해 강조했으며, 이예령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는 모든 기술 혁신의 근간은 기초과학임을 언급하며 기초과학 분야의 관심을 독려했다.

특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챗GPT의 열풍을 방증하듯 임석희 항우연 책임연구원의 우주공학 분야와 오유란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의 인공지능(AI) 강연은 참가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여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테마토크 강연은 유튜브(채널명 : WISET)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최광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 동력 확대!



### 태국 교육부 및 방콕직업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경북교육청은 해외 우수 유학생의 입학 추진을 위해 태국을 방문해 중등 직업교육 교류를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한 '경북교육청 입학추진단'은 22일부터 24일까지 태국을 방문해 교육부장관 면담, 방콕직업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직업교육위원회(OVEC) 소속 학교 등을 둘러본다.

이번 방문은 해외 우수 유학생의 입학에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기반을 구축하고, 현지 교육기관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입학추진단은 지난 23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태국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해외 유학생 사업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태국 교육부 기획조정국장 랑산 텡폰드리는 "세계로 뻗어가는 경북의 직업교육을 깊이 체감했으며,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까지 지원하는 특별하고 가치 있는 유학생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은 방콕직업교육청과 경북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경북교육청과 방콕직업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술 기능 인재 양성 협력 △대한민국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유학생의 교육 및 안전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의 직업교육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 등 현장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최상의 교육과정"이라며 "태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기르고 산업체 맞춤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업교육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국과의 업무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끈 입학추진단은 해외 유학생 입학 인프라 구축을 위해 25일(월)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우리들의 짱짱 신나는 여름나기!

봉화교육지원청, 2023 특수교육대상학생 여름 계절학교 운영  
박명호 봉화교육장, "이번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새 경험을 통해 잠재적 소질 개발 및 자신의 꿈과 끼 발견의 기회가 되길." 당부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4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10일간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봉화분관에서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8명을 대상으로 「2023 특수교육대상학생 여름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학교는 방학 중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속적인 교육활동 기회 및 사회 적응 능력 향상, 장애학생의 가정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름 계절학교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활동위주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 및 흥미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영화관 이용, 신체·지적활동 및 요리 재료 구매, 준비, 만들기 등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교육활동 기회제공 및 창의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박명호 교육장은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현실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계절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잠재적 소질을 개발 및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수업의 기본을 충실히 세워 수업 혁신을 이끈다

### 중등 수업전문가 활동 교사 수업 개선 직무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지난 22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중등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중등 수업전문가 활동 교사 수업 개선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수업의 과학성과 예술성의 관점에서 수업 관찰과 분석, 수업 성찰과 해석 방법을 익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고 수업 혁신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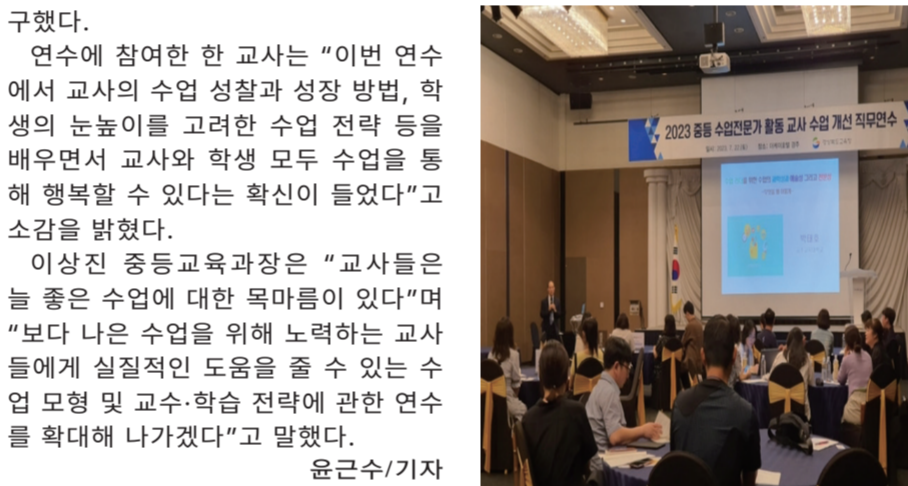
연수 대상자는 중등 수업전문가 활동 교사, 수석교사 등 수업 혁신을 위한 수

구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연수에서 교사의 수업 성찰과 성장 방법, 학생의 눈높이를 고려한 수업 전략 등을 배우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 수업을 통해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교사들은 늘 좋은 수업에 대한 욕망이 있다"며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 모형 및 교수·학습 전략에 관한 연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남교육청, 대입 수시모집대비 이동 상담실 운영 보도자료 송부

### 8월 5일, 12일, 4개 권역 고 3 학생·학부모대상 진학 상담 진행

경상남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 대비하고자 '찾아가는 권역별 이동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동 상담실은 대학 입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최신의 진학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상담실은 8월 5일 사천고등학교(오전), 통영 동원고등학교(오후), 8월 12일 양산 물금고등학교(오전), 김해상문고등학교(오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수시모집을 대비하기 위한 진학상담을 진행한다.

신청은 25일 10시부터 경남대입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 아이디(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을 한 뒤 학생과 학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하면 가족 동반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은 개인당 40분 동안 진행된다. 모든학년 학생부의 주요과목 내신 평균 등급과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모의평가 성적, 학생부종합전형 상담을 원할 경우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들고 오면 더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일반대학교의 수시모집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외부), 수상 경력, 독서활동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 학생부교과전형도 교과 성적 이외 정성적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확대되는 등 지원 시 유의해야 할 내용 중심으로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실에는 도내 진학전문가 교사들로 구성된 대학진학전문위원단과 경남·서부 대입정보센터 장학사와 상담교사가 참여한다. 진학 지도의 경험이 풍부한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학정보를 제공한다.

경남교육청 김경규 진로교육과장은 "이번 상담이 수시모집 지원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경남교육청 대입정보센터는 학교와 가정이 진학 협업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진학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 전남교육청, 안전·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 리플릿 제작 보급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 안전·재난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릿 '학교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대응하세요'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

리플릿은 최근 안전사고와 관련한 이슈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리플릿은 교통안전·화재·지진·풍수해(태풍, 집중호우, 낙뢰) 등 상황에 따른 단계별 학교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대비 체제부터 상황 종료 후 후속 조치에 따른 매뉴얼까지 소개하고 있어,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신속한 복구 대책 방안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리플릿 보급으로 교직원들과 학생

들이 학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익히고,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표준화된 대응 체계 및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안전·재난 사고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번 리플릿을 적극 보급해서 교육공동체들의 관심을 이끌고, 나아가 더욱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중배/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2022 우수축산물브랜드' 선정

# 봉화 한약우

이국초연지리산 명품한우

봉화 한약우는 우수혈통으로 선별한 한우에 자연의 기를 머금은 한약재를 첨가한 사료로 사육한 명품 한우고기입니다. 한우의 부드러운 감칠맛과 함께 각종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한 참살이 건강식품으로 청정지역 봉화군에서 무항균, 무항생제, 무농약의 생산조건으로 품질인증 받은 국내 고급브랜드 한우입니다.

봉화 한약우 프라자

봉화군

이국초연지리산 명품한우



# 고창농악, 세계유산도시에 흥겨움 더한다

### 호남우도 영무장 농악 계승하며 고깔소고춤, 설장구 등 최고의 예인 배출



고창농악은 호남우도 영무장(영광, 무장, 장성, 함평) 농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전라 남북의 고창 출신과 고창 거주 예인들이 그 중심에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영향으로 예부터 '윗녘 가락은 빠르고 아랫녘 가락은 느린데, 고창농악은 그 중간에 위치하여 간이 잘 맞는다.'라는 말이 전해진다.

고창농악은 1998년 정창환 소고 명인의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고깔소고춤 예능보유자 지정을 시작으로 1999년 황규연 상쇠 예능보유자 지정을 거치며 전국 농악판을 주름잡기 시작한다. 2000년 (사)고창농악보존회는 '전북무형문화재 제 7-6호 고창농악' 보유단체로 지정됐고, 그 후 2005년 정기환 명인이 설장구 예능보유자 지정을 받았다.

이명훈(고창 고수, 1968) 상쇠는 30여 년간 고창농악의 절자와 가락을 기록·연구·복원·전승해 현 고창농악의 전승문화가 정립되는 과정의 대부분의 토대를 세웠다. 그는 지역의 농악명인들과 문국, 풍장국, 도독쟁이꾼 등을 재현해냈으며, 나아가 전승교육·공연·

축제·연구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여 현재의 고창농악전수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고창농악 전승 단체와 공동체가 생겨났다. 전승교육에 있어서는 1993년에 불과 14명으로 시작한 고창농악전수교육이 30여년이 지난 지금 수천명의 전수생이 거쳐 가고 있다.

(사)고창농악보존회는 고창군 성송면에 위치한 '고창농악전수관'에 자리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공연·축제·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사업은 전국의 농악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시사철 굿피는 고창', '전통예술학교', '인문학 콘서트', '꿈피는 문화물' 등 20개 프로그램에 3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연은 마당공원의 무대화인 '꿈무', 판국의 연출적 해석을 시도한 '판국 1.3', 연기와 다양한 연희들이 결합된 연희극 '감성농악 시리즈', 옛 현장 판의 재미를 전하는 '고창농악 상설극판' 등 9개 프로그램에 65회 개최 등 다양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통연희축제인 '꽃대림축제', 고창농악 동호인들이 함께 하는 '고창국한마당', 14개 읍·면 '고창농악경연대회' 등을 꾸준히 기획·운영해 왔으며, 관람 방문객만도 년 4000여 명에 이른다.

전승교육사업은 교육신청 오픈 3분 만에 매진될 만큼 인기가 좋다. 주말 동안 고창농악전수관에 내려와 고창을 돌아다니거나 악기를 치며 머무는 '굿 스테이(2023)' 프로그램 역시 다양한 사람들의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명창 진채선의 이야기를 농악과 국악으로 풀어내는 국악뮤지컬 '이팝:소리꽃'이나 전통 판국의 재미와 흥을 느낄 수 있는 '고창농악 상설극판'을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고창을 찾는다.

'고창농악 전수(현 사시사철 굿피는 고창)'는 2007년 실인원 70여 명의 인원이 머물 수 있는 숙소동이 지어졌고, 전수활동과 함께 꾸준히 사용됐으나 최근 공간부족과 노후화로 인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최근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이 숙소동 건립을 위해 2023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0억원(총사업비 2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숙소동이 증축되면, 일시에 15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어 고창농악을 찾는 이들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향유 및 체험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늘날 고창농악이 지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무형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 신명나는 판을 꾸려온 덕분이다"며 "앞으로 고창농악이 세계로 뻗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 강남구, 올여름 강타할 테마파크형 축제 '별별놀이터로 떠나자!

### 8월 4일~5일 세곡동 율현공원에서 개최, 야외잔디밭에 펼쳐진 대형 놀이터와 풀장에서 시원하게 즐기는 영화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8월 4일~5일 11시부터 21시까지 세곡동 율현공원 잔디마당(율현동 77-2번지)에서 여름 테마파크형 축제 '2023 별별놀이터'를 개최한다.

'별별놀이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별별클래스 ▲별별피크닉 ▲별별놀이터 ▲별별스테이지 총 4개의 테마로 이뤄진다.

'별별클래스'에서는 양발목 컴백춤, 다육이 화분 등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공방과 자이언트 안 가방, 텀블러백 컬러링 등을 제작하는 똑막 공장소를 운영한다. 과학적 건축 원리를 바탕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협동하며 완성하는 건축 놀이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야외 잔디밭에 돛자리와 빈백에 앉아 소풍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별별피크닉'에서는 장우산과 캐치볼을 대여해준다. 폭염을 대비해 무더위 쉼터도 운영한다.

'별별놀이터'에서는 볼풀을 가득 채운 대형 에어풀장(8m×8m×3m)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키즈라이더, 물총 게임, 축구빙고 등에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 비누방울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빅버블존도 눈길을 끈다. 환상적인 매직&버블쇼, 신나는 디제

잉과 함께 천장 트러스에서 하얀 거품이 내려오는 화이트 버블 파티, 셀프 버블체험 등을 선보인다.

저녁 6시부터 열리는 별별스테이지는 이번 축제의 백미다. 1부(18시~19시) 뮤직콘서트에서는 4일에 타악 퍼포먼스, 어쿠스틱 공연, 5일에 어린이 연극, 어린이 만화 OST 아카펠라 공연이 열린다. 2부(19시~21시)에서 풀장 영화제가 이어진다. 스크린 앞에 미니풀장(2~4인용) 100개, 빈백 100개, 돛자리 100개 총 300석을 설치해 1,000여명이 열대야 속에서 시원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4일에는 알라딘, 5일에는 주토피아를 상영한다.

한편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세곡동 율현공원과 일원 에코파크에서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별별놀이터는 이 물놀이장과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별별놀이터에서 어린이와 가족 모두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며 "올해 처음 개최한 여름 축제가 앞으로 강남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 경기도, 28일부터 김포-고양-파주 잇는 광역 관광프로그램 운영

### 2개 시 대표 관광지 연결하는 정규노선과 행사·축제 연계한 기획노선 운행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7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김포, 고양, 파주시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프로그램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를 운영한다.

시티투어는 매주 금·토·일요일 운행하는 정규노선과 지자체별 행사 및 관광 수요 등을 반영한 기획노선으로 구성됐다. 정규노선은 2개 시 대표 관광지를 연결하는 당일 코스다. 금요일 김포-고양 코스(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장항습지 등), 토요일 고양-파주 코스(일산호수공원, 중남미문화원 등), 일요일 파주-김포 코스(오두산 통일전망대, 김포 아라마리나) 등으로 1일 1회 운영한다. 홍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지자체별 주요 관광지를 거쳐 다시 홍대입구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기획노선은 단풍 명소 등 계절별 특색을 반영하거나 지자체 행사 및 축제와 연계하는 비정기적 코스로 사전 예약을 통해 15명 이상 참여 시 요일 구분 없이 운행한다.

탑승 장소는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시티투어 전용 웹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발견도 가능하다. 자세한 코스는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경기 서북권의 평화생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광역시티투어를 통해 인접 지자체인 김포·고양·파주가 가진 매력을 따로 또 같이 보여줄 것"이라며 "광역화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 성과분석을 거쳐 권역별 광역시티투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삼/기자



**김포-고양 평화 생태 역사**  
 - 코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김포) - 장항습지(고양) - 일산호수공원(파주) - 중남미문화원(파주)  
 - 소요시간: 3시간 / 입장료: 10,000원

**고양-파주 자연 힐링 문화**  
 - 코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김포) - 장항습지(고양) - 일산호수공원(파주) - 중남미문화원(파주)  
 - 소요시간: 3시간 / 입장료: 10,000원

**파주-김포 안보 예술 문화**  
 - 코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김포) - 장항습지(고양) - 일산호수공원(파주) - 중남미문화원(파주)  
 - 소요시간: 3시간 / 입장료: 10,000원

**2023 별별놀이터**

8월 4일(금) ~ 8월 5일(토)  
 세곡동 율현공원 율마당 · 11시~21시 · 참가비 무료

별별클래스: 업사이클링 공방, 똑막 공작소  
 별별놀이터: 모래놀이터, 빅버블존, 에어벤치존  
 별별피크닉: 펍픽닉존, 워터존  
 별별스테이지: 뮤직콘서트, 풀장영화제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떠나.자!**

**#경북예천여행 #어딜가도인생샷 #여행**

- 예천\_회룡포**: 79,848개 좋아요. yecheonun #육지안의섬 #홍병다리 #트래킹
- 예천\_곤충생태원**: 89,719개 좋아요. yecheonun #모노레일 #다양한체험 #놀이동산인줄
- 예천\_강물화전시관**: 69,752개 좋아요. yecheonun #삼강주막근처 #아이와함께 #키즈카페인줄
- 예천\_삼강주막**: 82,134개 좋아요. yecheonun #삼강주막 #마지막주막 #주모항상



# HDC현대산업개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7월 21일 견본주택 오픈

## ■ 미니 신도시의 중심부에서 누리는 쾌적한 생활 환경

HDC현대산업개발은 7월 7일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 2동 88-14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총 11개 동 규모로 전용 39~113㎡ 1,957가구 규모의 대단지이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425가구이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들어서게 되

는 광명 뉴타운은 약 2만 5,000세대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교통, 교육, 상업시설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뉴타운 내에서도 중심부에 조성되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 거리에 위치해 인천이나 강남권역으로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서부간선도로의 진입이 용이해 서울 핵심지 등 광역 이동이 빠르다.

원도심에 들어서는 만큼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 주위로 생태하천인 목

감천과 안양천을 따라서 수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단지 반경에 도보권 광명전통시장과 대형할인점, 영화관 등이 위치했다. 아울러 단지 내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앞 광명초등학교를 사이에 두고 공원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그린 통학로' 이용이 가능하다.

## ■ 다양한 타입에 스마트 기술과 에너지 효율 동시 적용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입주고객들의 다양한 구성원에 따라 전용 39㎡

타입부터 113㎡ 타입의 대형 평형까지 총 10개의 타입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일조권의 효율을 높였다. 아파트 전용 75㎡ A타입과 84㎡ A타입은 4Bay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높였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펜트리 등 풍부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HDC IoT 시스템이 적용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에너지 절감과 스마트 기술을 동시에 적용했다. 먼저, 세대 내의 난방, 환기 등을 세대 내 월패

드와 아이파크홈 앱을 통해 일상에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온도조절과 대기전력 차단 등의 각방에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고 전기 에너지 사용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도록 각 실 통합 스위치가 설치된다. 세대 내 조명은 모두 LED 타입으로 적용해 기존의 조명기구 대비 약 50%의 전력 소비 절감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졌다. 거실 조명 스위치는 조그다이얼과 터치스크린 형태로 결합한 조명제어 일체형 월패드를

이용하면 밝기와 색상을 10단계로 조절해 입주고객의 생활 패턴에 알맞게, 쉽게 제어할 수 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인식 기술을 공동현관 로비폰에 적용했다. 언택트 출입통제 시스템을 통해 입주고객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높은 인식률로 편리한 출입이 가능하다. 세대현관은 지문인식을 통한 One-Step 푸시풀 개폐 방식을 적용해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다.



- 광명 뉴타운 중심부에서 누리는 공원형 대단지 프리미엄

- 7호선 광명사거리역 역세권 입지...교통·교육·생활 등 원도심에서 누리는 인프라

- 10가지 타입 평면구성에 스마트 기술과 에너지 효율 동시 적용

## ■ 지상에 차 없는 단지, 공원형 대단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됐다. 주차입구에서부터 맞이하는 정원을 시작으로 중앙 오픈 스페이스를 가로지르면, 중심부에 4개의 테마로 구성된 다채로운 중앙정원이 들어선다. 단지 외곽으로는 운동 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등 순환하는 산책로로 구성했다.

단지 앞 광장과 조경공간은 보행자 위주의 동선으로 통합 커뮤니티시설로 연계된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커뮤니티시설은 2개 층에 걸쳐 대규모로 설계됐다. 먼저 지상층은 가족단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 위주의 커뮤니티시설로 구성되었으며, 지하층은 '스터디존'과 '스포츠존' 2개 구역으로 구분했다.

먼저 지하층 스터디존에서는 특화된 1인실 구성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독서 및 개별 학습이 가능한 프라이빗 독

서실이 구성된다. 1인실부터 다인실까지 업무 목적에 맞게 다양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도 설계됐다. 스포츠존에는 입주고객의 여가를 위한 운동 공간으로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골프 연습장 등이 계획되어 있다.

지상층에 위치하게 되는 주민 커뮤니티시설은 '키즈카페'와 '패밀리카페', '클럽하우스' 등으로 구성된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입주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휴식과 친목의 시간을 누리는 공간으로 설계됐다.

## ■ 분양일정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아파트 청약 접수는 특별공급 7월 31일을 시작으로, 1순위 8월 1일, 2순위 8월 2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8월 8일이다. 정당계약은 8월 22일~25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하반기 예정이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8번

지에 마련됐다.

☎ 문의전화 : 031-443-1957

☞ 사이버 견본주택 주소 : <https://hdc.i-park.com/gwangmyeong/modelhouse>




**HDC**  
현대산업개발